

[論 文]

日本 有田天狗谷窯에 보이는 韓國文化的 影響

姜 敬 淑

(국립 서울 산업대학)

目 次

- I. 머리말
- II. 有田天狗谷窯
 - 1. 有田의 歷史背景
 - 2. 天狗谷窯의 構造
 - 3. 天狗谷窯의 出土遺物
- III. 天狗谷窯의 推定年代
- IV. 朝鮮白磁窯 및 出土遺物과의 關係
 - 1. 朝鮮白磁窯 構造
 - 2. 出土遺物
- V. 맺음말

I. 머리말

198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한국 미술사학회는 「일본 전통문화 속에 뿌리박힌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과제명으로 학술연구 조성비를 지원 받아 공동연구 하게 되었다. 그 연구 내용은 고건축 및 가람배치, 도자기, 공예, 벽화, 조각, 고고학 등 여섯개 분야이고 필자는 이 가운데 도자기를 담당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도자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日本 有田窯가 그 과제로 有田窯의 전통 속에 뿌리박힌 한국도자문화를 구명하는 것이다. 有田지방은 한국의 陶磁 匠人들에 의해 有田 泉山の 白土壙에서 陶石을 채취하여 백자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곳으로 이로 부터 일본 백자 제조의 시초가 된다.

그러므로 有田窯와 조선백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므로써 이 문제에 어느정도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有田의 어느 가마가 초기 백자가마였느냐 하는 문제가 그 관건이 되겠는데,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자료로서 有田天狗谷窯의 발굴보고서와 기타 일본측 기록을 선정하였다.

天狗谷窯은 임진란때 건너간 한국 기술집단의 한 사람인 李參平과 깊은 관련이 있는窯로 일본에서는 간주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하다면 이것은 바로 한국 기술의 전파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현재까지의 일본의 학술조사에 의하면 天狗谷窯은 1614~1615±12년경 백자생산이 되고 있었음을 명기하고 있다.¹⁾ 이렇게 시작한 有田의 백자생산은 오늘날 전 세계 굴지의 도자기 생산지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뿌리는 한국의 陶磁器 匠人이었다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天狗谷窯 발굴보고서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정밀성을 가진 학술발굴이었고 양식사적인 해석이 주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地磁氣年代測定法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자기연대측정은 조선에서 건너간 匠人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17세기 전반(1614~1615±12)이라는 시기로 추정되어 두 사실이 거의 같은 시기로 잡혀졌기때문에 과연 조선 백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측 보고서 기록을 보면 양국간의 관련이 깊다는 의견이 보고서 도처에서 기술되고 있으므로 天狗谷窯발굴보고서를 기본자료로 삼아 입론하는 것은 양국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데 가장 첩경이라고 본다. 따라서 양국간의 영향관계가 구명되면 「일본 전통문화속에 뿌리박힌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에는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발굴도편을 실견하면서 우리나라 백자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실제로 李參平과 같은 한국인 기술자에 대한 우리측의 기록이나 그 관련유적이 전무한 점, 반면에 일본에 남아있는 李參平의 舊記錄이라는 것도 직접 다루지 못하고 오직 발굴보고서에만 의존하는 점등은 본고의 한계점임을 미리 밝혀둔다. 특히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1614~1615±12년이라는 제작시기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보고있다. 天狗谷 출토도편은 우리나라 그릇과 비교할때 훨씬 시대가 뒤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天狗谷窯가 과연 일본 자기 창업기에 해당되는窯인가 라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문제는 본문을 다루면서 취급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에 끼친 영향관계가 학술적으로 보다 활발히 연구되어 지는 자극제가 된다면 그런대로 작은 보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II. 有田 天狗谷窯

(1) 有田의 歷史背景

먼저, 有田 天狗谷窯를 언급하기에 앞서 肥前지방의 도예배경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日本の九州는 지도상으로는 우리나라 남쪽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곳이며九州 북서부 지방은 선사시대부터 우리나라 文化移入의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九州의 북서부 일대가 肥前지방이며(中部는 肥後지방) 肥前지방의 도예는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肥前·肥

1) 有田町教育委員會, 『有田天狗谷古窯』, 1972(昭和47年), pp.188~189.

後지방에서는 新羅계통의 토기기술의 영향을 받은 고화도 소성의 須惠器 古窯址가 수십여곳 확인 조사되고 있고 토기제작뿐만 아니라 신라계 瓦當의 존재는 신라불교및 불교미술의 전파를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본 전 사회가 떠들석 했던 九州 佐賀縣 神埼郡 新崎町과 三田川町에 위치한 「吉野ヶ里 遺蹟」²⁾의 靑銅器시대 유적지의 발굴은 한반도와 깊은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말해 주고 있다.

九州의 도에는 9세기 이후까지도 土器와 瓦當 종류만을 일관하여 생산하는 침체현상을 보였지만 室町末期에 들어와서 朝鮮과 明과의 무역이라든지 또 豪族들이 행한 倭寇의 밀무역 등이 행하여 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九州를 대상으로 하는 豪商들은 茶道를 중심으로 상류사회와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 결과 陶藝 발전에 기여하였다. 더우기 茶器로서의 朝鮮 陶磁에 대한 그들의 기호는 조선 도자기가 무역품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임진난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도예기술은 九州지방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니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窯址가 현재 九州 佐賀縣 東松浦郡에 있는 岸嶽城址 주변의 帆窯·飯胴窯(上窯·下窯), 皿屋窯등이다. 이들 窯址로부터는 鐵繪로 무늬를 넣은 것<도 1>, 빗음받침을 받쳐 포개어 군것<도 2>등 한국의 16세기 분청시대의 분위기를 감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국간의 기술적인 관계를 시사해 주고 있다.

九州의 도자기는 1592~1598년 사이에 임진난과 정유재난을 계기로 큰 획선을 긋게되며 특히 肥前지방에 준 자기제조의 영향은 지대하였으니, 전쟁을 통해 肥前지방에서는 白磁와 靑畫白磁 기술을 직접 도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말해 주는 초창기의 가마가 有田의 天狗谷 窯라고 일본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일본 미술은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서는 조선의 기술과 또 조선을 통해서 중국의 요소를 도입하는데 도예에서도 예외없이 임진난 이후 백자와 청화백자는 조선의 기술자를 통해 직접 받아 들었다. 이러한 기술의 연마위에 다시 여러가지 화려한 色繪磁器의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여 寬永末年(1624-1643)으로부터 正保初年(1644~1647)간에 肥前지방의 色繪磁器가 완성된다. 색회자기의 완성자로서는 柿右衛門이 대표이며 이들의 배경에는 伊万里津을 중심으로 활약한 陶商이라든지, 長崎津을 통해 입수되는 색회안료의 무역이 큰 역할을 했다.

하여간 九州의 서북지방은 도자기를 통해 중요한 경제권을 확립한다. 그 예로는 통일정책을 시도한 豊臣秀吉이 임진·정유난을 통해 조선의 匠人들을 귀화시켜 기술인력을 확보하면서 여러곳에서 開窯하였고, 짧은 기간중에 요업은 넓게 여러곳으로 퍼져나가 九州 경제권이 확립되었으며 그 중심지가 有田이다.³⁾ 이와같이 豊臣秀吉의 침략적 행동은 일시적인 발상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에컨대, 九州 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왔던 역사적인 해적활동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海東諸國記』에 의하면 “高麗末에 조선에 침입한 倭寇는 肥前の 松浦·壹岐, 그리고 對馬島가 가

2) 『吉野ヶ里遺跡展』朝日新聞西部本社企劃編集, 1989.

3) 松本源次(柳光錫譯), 『有田陶業側面史』(明治編), 아스카코리아, 1988.

4) 永竹威編, 『肥前陶磁の系譜』, 名著出版, 1974, p.232.

장 많다.”⁴⁾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朝鮮王朝實錄』에도 여러 곳에서 일본 해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해적들의 활동을 통해 조선의 생산품들이 알려졌으리라고 본다. 일본의 해적행위는 世宗때 三浦를 개방하므로 禁寇교섭이 이루어 지고 對馬島와 무역을 하므로써 해적행위는 일시 중단되었으나 위낙 이들의 문화적인, 경제적인 욕구가 강하다 보니 1549년에 다시 松浦지방 해적의 활동이 조선 연안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동, 산둥, 광둥성까지 미쳐 나가는 대규모 해적활동이 행하여 진다. 이러한 해적 행위는 西日本지방의 문화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급기야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까지 말해지는 일본 도예사상 대 혁신을 일으킨 豊臣秀吉의 1592년 조선 침략으로 발전한다.

그 예로는 1593년에 毛利輝元에 의해 松本에 귀화한 李勺光, 李敬 형제라든지, 또 1598년 12월에는 龍造寺家久(후에 多久邑主가 된 長門守 安順이라는 사람)에 의해 李參平은 佐賀榮城가까운 唐人町에 거주 시켜 陶業에 종사케 한다. 그 밖에도 黒田長政과 細明忠興은 조선 陶磁 匠人을 영입해 上野上라 寫取山에서 開窯하게 했으며 松浦鎮信은 100여인의 조선 사람을 中野의 丘陵에서 開窯케 했다.⁵⁾ 이러한 흔적들이 九州 가마터에 남아 있는 高麗谷, 高麗屋敷, 高麗神碑<도 3>, 高麗神(石祠)같은 지명과 유적들이다.

이상과 같이 有田과 有田 주변이 중심이 된 자기생산 활동은 곧 일본화 되어 갔지만 조선의 영향이 그 기초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有田 天狗谷에서 발굴 조사된 가마를 중심으로 가마구조, 출토유물의 성격 등에 대해 살펴보자.

(2) 天狗谷窯의 構造

有田 天狗谷窯는 九州 佐賀縣 有田町의 上白川 天狗谷에 자리잡고 있다<도 4>. 이곳은 肥前磁器의 발생지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으로 ⁶⁾ 1965年(昭和40) 5월 天狗谷窯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有田町에서는 고고학적인 학술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여 이해 10월에 예비조사를 거쳐 그 후 모두 6차의 발굴이 행하여 졌다.

天狗谷窯의 유구는 적어도 5~6개의 窯(A, B, C, D, E, X窯)<도 5>가 동일 장소에서 상·하의 중첩 또는 바로 인접해서 구축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좁은 협곡에 위치한 관계로 지변에 의해 현상이 교란된 곳도 있다. 가장 하층에 축조된 것이 E窯, 그 위가 A窯, 또 그 위가 B窯이며 최상층이 C窯이다. D窯만이 훨씬 윗 부분에 위치하고 D窯의 하부구조는 B窯가 축조될때 파괴되

5) 주4 앞쪽, p.232.

6) 北島似水, 『日本陶磁史論』, 明治36年;大宅經三, 『肥前陶磁の 創業期』, 大正10年;

鹽田力威構話, 『肥前陶磁の 創業期』; 横尾, 『有田陶器 沿革史』; 寺内信一, 『有田磁業史』, 『陶器全集』; 今泉雄作·小森彦次, 『日本陶磁史』; 水町和三部, 『肥前磁器の 創業時代』, 雄山開, 昭和治 11年; 『伊萬里染付大皿の研究』, 桑名文星堂, 昭和19年; 「本邦磁器の 創始」, 『陶器構座』, 第11卷(上), 東京文化出版, 昭和29年; 「肥前磁器の 創始」, 『世界陶磁全集』4 河出書房, 昭和31年; 『伊萬里磁器の 創業時代』(古伊萬里), 佐賀縣文化館, 昭和 34年, 「初期伊萬里」, 『陶器全集』, 平凡社, 昭和 41年.

어 알 수 없다. 대개 축조연대 순으로는 E, A, D, B, C窯의 순이며 그 외에 정확히 양상이 파악되지 않은 X窯로 명명한 불명의 요가 있어 모두 6基가 있었으리라고 추정하였다.

窯 아궁이는 상태가 비교적 좋은 B窯의 경우, 길이 약 2.60m, 불이 들어 가는 입구의 폭이 60cm이다(도 6). 소성실 하나의 폭은 A窯의 경우, 그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면 3.20~3.86m, 길이 2~3.60m, 沙床面만의 길이는 2.20~2.95m 이다. B, D, E窯의 경우도 A窯와 대동소이 하다. 대체로 부정형 직사각형에 가까운 계단상의 連房式登窯⁷⁾로 전체 가마의 길이는 보통 50m이상이다(도 7). 전체 평면이 완전히 남아있는窯가 A窯로 16개의 소성실과 1개의 아궁이를 가지고 있고, 전체 길이는 52.4m이며 경사는 평균 14도이다. 이들 가마들은 몇 차례의 보수와 때로는窯室이 증설된 흔적이 있으므로 같은 가마일찌라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이 보수나 증설의 흔적 외에도 출토유물의 성격에서도 보여진다.

(3) 天狗谷窯의 出土遺物

天狗谷窯址群을 구성한 E, A, D, B, C의 다섯窯로부터 나오는 陶片은 E, A, D(A그룹)와 B, C(B그룹)의 두 개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A그룹의窯로부터는 완과 장경병이 주이고 기타 소수의 사발과 접시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비해 B그룹의窯로부터는 완, 사발, 접시, 병 이외에 花器, 油壺, 大鉢 등이 출토된다. 이와 같은 출토 도편에 대해서는 三上次男 교수가 고찰하고 있는 바, 조선 도자기의 영향이 많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고서의 이러한 대목을 일일이 지적 설명하면서 天狗谷窯가 입은 조선의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의 순서는 시대순에 따라 E, A, D, B, C窯의 순서로 하겠다.

① E窯

최하위층에 있는 E窯 출토품들이 가장 조선적인 분위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E窯 13室과 15室 경우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ㄱ. E窯 13室

E窯13室에서는 靑磁, 靑畫白磁, 白磁, 가마도구 등과 같은 종류가 출토되며 기형은 주로 병, 사발, 완이다.

가. 靑磁瓶(도 8)

청자병은 가는 목에 배부분은 球形이며 두 줄의 線무늬가 횡으로 네 곳에 둘러지고 병의 어깨에는 긴 모양의 연관무늬가 얇은 양각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태토는 약간 철분이 있는 회색이며 흰

7) 주1 앞책, p.23.

맛을 띤 과란 투명유가 시유되었는데 유면은 고르지가 않다. 이 병에 대한 三上次男의 의견은 “球形, 技法, 釉色으로 보아 朝鮮半島의 靑磁계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李朝에서는 예컨대 鷄籠山 諸窯나 廣州 道馬里窯에서 靑磁를 만들고 있는데 이 병과 같은 器形은 李朝靑磁의 범위에 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高麗靑磁 중에서 유사한 형식을 찾을 수 있다.”⁸⁾ 라고 하면서 고려상감병을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도 9>. 다시 三上次男은 “天狗谷의 陶工들이 가져온 高麗靑磁, 혹은 그 전통을 있는 李朝初期의 청자병의 재현을 시도해서 독자적인 맛이 있는 天狗谷 靑磁를 생산해 냈는 지도 모른다.”⁹⁾ 라고 三上次男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이 내용을 미루어 보아 E窯 13실에서 출토된 청자병은 한국적인 영향을 직접 받고있을 뿐만아니라 한국인 匠人이 직접 제작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케 한다.

나. 靑畫白磁

청화백자로는 병과 완 종류가 있는데, 특히 완 종류는 주목할만 하다 <도 10>. “이들 완은 기벽이 두껍고 힘이 있으며 태토는 철분이 약간 있어 회색을 띠고 있다. 투명유는 굽다리 밑에까지 썩어져 있어 E窯의 특징을 이룬다.”¹⁰⁾ 무늬는 구연부와 胴下部에 1~2줄의 횡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나비와 같은 곤충이 들어가 있는 草木, 花木文이 그려져 있으며 굽측면에는 한 줄의 횡선(어떤 것은 가는 것, 어떤 것은 굵은 것)이 그려졌다. 무늬의 조합은 花木, 蝶, 花木, 梅花 또는 花木, 圓圈, 蝶, 圓圈의 네 개의 무늬가 한 셋트를 이루고 있다. 무늬는 진한 靑畫로 윤곽을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진하게 혹은 연하게 칠해 충분히 청화를 사용하여 채색하고 있으며 묘법도 대담하다. “양산에서 오는 빠르고, 가벼운 맛은 없으며 비교적 느긋하게 묘사하고 있다.”¹¹⁾ 이러한 완의 형태와 무늬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三上次男은 기술하고 있다. 즉 “E窯 13실 출토의 靑畫를 보면 日本의 桃山期の 장식문양의 양식보다는 오히려 李朝初期의 靑畫白磁나 靑畫辰砂, 혹은 귀얄기법을 연상시킨다. 李朝前·中期에는 자주 소박한 모란문과 연화문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 가운데는 靑畫 윤곽에 그 안은 靑釉로 장식하고 있는 것이 적지않다”¹²⁾ 고 하면서 조선의 청화백자목단문항아리 <도 11>를 그 예로서 제시했다. 또 계속해서 “이러한 무늬를 간략화 시킨 것이라고 보아 E窯 13실의 무늬는 조선 청화백자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¹³⁾ 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작은 과편 <도 12>에 그려져 있는 언덕과 누각이 묘사된 山水文의 필치도 조선풍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⁴⁾

이상에서와 같이 청화백자완들은 대개, 조선시대 청화백자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화되기 전단계로 조선풍의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해준다.

8) 주1 앞책, p.49.
 9) 주1 앞책, p.49.
 10) 주1 앞책, p.50.
 11) 주1 앞책, p.51.
 12) 주1 앞책, p.51.
 13) 주1 앞책, p.51.
 14) 주1 앞책, p.51..

L. E窯 15室

E窯 15실로부터도 장경호, 완, 皿 등의 청화백자, 청화청자, 철유 등의 도편과 기타 가마도구들이 출토되는데 특히 장경병과 완이 주목된다.

가. 장경병

장경병은 모두 7개 출토되는데 기벽이 두껍고〈도 13〉 둥근 동부에 목은 가늘고 나팔 모양의 주둥이를 가졌는데 주둥이 끝은 각이 지게 깎았다. 굽은 편평하게 깎았으며 굽다리 주변에는 모래가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토는 희고 양질이며 靑味를 띤 투명유이다. 무늬는 앞·뒤에 각 각 소나무와 매화무늬를 약간 도안화시키고 있는데, 이를테면 일정한 유형은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고 어떤 본에 충실히 따르고 있지는 않다.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는 三上次男으로 하여금 조선시대 청화백자 그림을 생각나게 하고 있다.¹⁵⁾ “그러나 병의 주둥이를 각이지게 깎는 솜씨라든지, 굽다리가 없이 그냥 편평하게 처리하고 있는 제작기법은 조선의 병과는 다른 점임을 지적하면서 조선의 병과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아마도 이 병의 형태는 조선 병의 기형을 추구하면서 일본 도래의 도공이 일본 재래의 기형, 즉 桃山時代의 美濃陶 등을 참고해서 만든 것일 것이다.”¹⁶⁾ 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 碗

E窯 15실 출토의 완은 풍부한 胴部를 가지고 있으며 굽다리는 안으로 약간 좁혀지고 있고〈도 14〉 전체 형태는 경쾌하다. 무늬는 상·하단에 각 각 1~2줄의 橫線을 그리고 山水, 草花, 篋, 窓 등의 무늬가 시문되었는데 산수화의 경우에는 遠山鈞丹와 樓閣樹林이 앞·뒤로 조합되어 구성된 구체적인 무늬가 있는가 하면 극히 생략된 산수화가 있다. 초화문은 붓꽃 종류의 것이고 篋를 묘사한 완의 경우에는 타원형의 문양대를 넓게 삼면에 구성하고, 그 사이에는 반복된 長三角形의 수직 선무늬로 공간을 채우고 있다. 타원형의 문양대를 보고서에서는 窓繪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창회문은 고려의 상감청자라든지 조선중·후기의 향아리와 병에 널리 사용된 형식이며 天狗谷窯에서는 조선과 중국의 것을 모방하면서 독자적인 長三角形의 수직선 무늬를 창출한 것이리라.”¹⁷⁾ 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조선의 것과 유사한 점으로는 대접굽다리의 시유방법이 “조선중·후기의 廣州 諸窯의 것과 유사한 점이 흥미롭다”¹⁸⁾ 라고 덧붙여 언급하고 있다.

다. 皿

E窯 15실로부터는 두 편의 皿이 수습되었는데 하나는 山水文이〈도 15〉, 다른 하나는 토끼와 그 몸달〈도 16〉이 시문되었다. 산수문접시의 산수문은 낮은 언덕에 몇그루의 고목과 원산의 구도를 가진 가을 경치의 平遠山水圖로 이러한 분위기의 풍경은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고 조선풍이

15) 주1 앞책, p.53.

16) 주1 앞책, p.55.

17) 주1 앞책, p.56.

18) 주1 앞책, p.56.

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⁹⁾ 뿐만아니라, 접시 주변의 여의두문(雲花形장식대)과 같은 문양대도 고려 청자 항아리의 어깨와 밑부분 문양대에 흔히 사용되었던 蓮瓣文帶<도 17>와 조선 후기 청화백자 항아리의 어깨와 밑부분에 많이 등장했던 如意頭文<도 18>의 영향임을 말하고 있다.²⁰⁾ 뿐만아니라, 토끼와 그믐달문 접시파편의 경우에는 청화안료를 붙어서 채색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은 중국의 특수한 기법이 전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16세기 조선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볼 과제다” 라고²¹⁾ 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의도는 조선도자의 영향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서 나온 것인데, 사실상 이 방법은 조선에서는 15세기 粉靑沙器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도 19> 조선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아닌지는 당장 증명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농후하다.

라. 가마도구

E窯 15실 출토의 가마도구 가운데 匣鉢, 匣蓋, 그리고 陶枕은 어떤 도자기편 보다도 가장 조선적인 특징을 보인다<도 20>. 보고서에서도 “이 匣과 蓋의 형식은 朝鮮半島의 李朝時代 磁器窯의 匣과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²²⁾ 라고 기술하므로써 조선시대와의 깊은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 뿐만아니라, 도지미(陶枕)도 거의 15~16세기의 조선백자 요지에서 발견되는 도지미와 매우 유사하다.

이상에서 天狗谷의 최하층 E窯의 13과 15실의 출토 도자기편들과 가마도구들을 보아왔다. 특히 靑畫무늬에서 조선과 관련이 있는 것들에 한해서 일일이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간접으로 인용해 가면서 조선과의 관계를 살펴왔다. 이에 대한 한국도자기의 입장에서의 비교는 VI장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天狗谷 E窯의 바로 다음 시기의 가마인 A窯는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는지 A窯출토 도편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D窯, B·C窯를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② A窯

A窯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남아있어 아궁이를 포함해 모두 16개실의 전장 53m에 달하는 가마이다(도 7). 또 熱殘留磁氣에 의한 연대측정을 A窯 6실에서 시도하여 그 결과 A窯 廢絶年代가 1614~1615±12년으로 측정치가 산출되었다. 그러면 출토유물 가운데 조선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기술한 부분만 간단히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A窯도 E窯와 같이 白磁, 靑畫白磁, 靑磁, 陶枕(원형과 장고형)등이 골고루 출토된다. 특히 A窯 13실로부터 출토된것 중에 완에 그려진 筍文<도 21>은 중국에는 드물고 朝鮮文樣 범주안에 넣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²³⁾ “고려시대나 조선전·중기의 무늬와 무엇인가의 관계가 많다고 생각

19) 주1 앞책, p.56.

20) 주1 앞책, p.56~57.

21) 주1 앞책, p.57.

22) 주1 앞책, p.59.

23) 주1 앞책, p.70.

된다”²⁴⁾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 13실로부터는 도지미와 완들이 주로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 22>.

③ D窯

D窯는 A窯보다 위쪽으로 높은 곳에 축조되었는데, 후에 D窯의 下部를 파괴하고 B窯를 축조하였기 때문에 D窯 下部는 남아있지 않고 上部 네방만 남아있다.

상부 네방으로부터는 주로 완이 출토되며 그외 접시, 병편, 그리고 도지미 등도 있다 <도 23>. 특히 완의 버드나무 무늬는 A窯에 비해 단순 형식화되고 훨씬 일본풍의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도 24>.

A窯와 D窯와의 관계는 A窯의 위치가 D窯보다 하층에 있으므로 D窯보다는 먼저 축조되었고 출토된 도편의 상태, 무늬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D窯의 것이 A窯보다 더욱 경직, 내지는 형식화했으며 제작기술도 거칠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E, A, D窯는 E, A, D의 순서로 축조되지만 출토유물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어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요와의 사이는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시기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 B·C窯

B와 C窯는 위에서 살핀 E, A, D窯와는 양상이 다른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B窯로부터는 완, 사발, 접시, 장경병, 향로 등 다양한 기형의 백자와 청화백자, 그리고 갑발, 가마도구들이 출토된다. B窯의 출토유물들은 조선적인 전통보다는 일본화의 경향을 짙게 띄고 있다. 이를테면 항아리나 사발에 그물 모양의 청화무늬라든지 <도 25>, 병주둥이 바로 밑에 굵은 띠를 둘러 새로운 모양을 보이는 점 <도 26>, 완굽밑에 年號와 國名을 靑畫로 쓰고 있는 명문도편의 출토는 E, A, D窯와는 전혀 다른 면이다.

C窯에서는 B窯와 거의 같은 계열의 도편이 출토된다 <도 27>.

이상에서 보아 온 두 그룹은(E, A, D窯그룹과 B, C窯그룹) 제작시간의 거리가 있으며 같은 그룹안에서는 E, A, D窯 順이고 또 B, C窯 順 인데, 그 선·후 관계는 가마위치, 형태, 무늬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었다. 특히 최하층인 E窯가 가장 조선적인 분위기를 짙게 풍기고 있었던 점은 조선과의 깊은 관계를 시사한다. 그러면 이들의 제작활동 시기는 어떠했는가?

Ⅲ. 天狗谷窯의 推定年代

지금까지 天狗谷의 다섯개의窯로부터 출토된 도편을 소개하면서 조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24) 주1 앞책, p.71.

는 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언급하여 왔다. 이러한 단순 소개의 의도는 天狗谷窯의 연대추정 방법이 地磁氣年代學的 방법과 理化學分析 방법을 이용하여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현시점에서 地磁氣年代推定 방법과 理化學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地磁氣의 연대추정 방법과 理化學分析 방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地磁氣測定 추정 연대의 원리, 방법을 보고서 내용을 통해 간단히 요약 소개하고 地磁氣測定에 따른 永年變化曲線에 의해 산출된 추정연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추정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적인 영향이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미쳤는지 대강 한 귀퉁이의 윤곽은 파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 최소한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연대추정을 시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17세기 이후의 조선도자의 연대추정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즉 天狗谷窯의 추정연대가 한국도자사의 흐름에서 볼때 과연 타당한가? 라는 측면과 天狗谷窯의 연대추정은 우리나라 도자사의 편년에 비추어 보아 추정된 연대가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의 연구 측면이다. 그러면 天狗谷窯의 연대 측정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1. 天狗谷窯址의 磁氣年代 測定²⁵⁾

磁氣年代測定法の 원리는 고고학적 유물이 지닌 熱殘留磁氣를 이용해서 유물의 연대를 아는 방법으로 磁鐵鑛과 赤鐵鑛과 같은 磁氣를 띄기 쉬운 鑛物이 지구자장과 같은 弱磁場 안에서 열을 가한 후 냉각하면 그 때 磁場의 방향으로 永久帶磁되는 성질을 이용하는데 있다. 그런데 地磁氣의 방향은 永年變化를 이루고 매년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熱殘留磁氣에 의한 熱成 당시의 地磁氣의 방향을 알려면 그것을 地磁氣의 永年變化에 비추어 年代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방법을 가지고 실제 연대의 눈금을 읽는 것인데 地磁氣의 永年變化는 가능한한 정확한 標準尺度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永年變化의 양상은 年代를 알 수 있는 熱殘留磁氣에 의해 당시 地磁氣의 방향을 알고 이것에 기초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이 때에 試料로는 噴火年代를 아는 火山의 鎔岩, 窯와 爐의 燒土등이며 이 외에도 옛 航海日誌의 地磁氣測定の 기록 등이 이용된다.

窯의 燒土등이 일단 지닌 熱殘留磁氣는 대개 安定되고 시일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지만 다시 열을 받으면 소멸하고 냉각할때는 이 때의 磁場의 方向으로 帶磁한다. 따라서 窯燒土의 熱殘留磁氣로부터 알 수 있는 地磁氣의 방향은 그 窯가 최후로 사용한 당시의 地磁氣의 방향을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장소에 중복해서 가마가 구축된 경우에는 위의 窯의 燒土에 전해져 그 온도가 충분히 높게 되면 아래 窯 시대에 지녔던 熱殘留磁氣는 소멸하고 위의 窯의 당시의 地磁氣의 방향에서 帶磁한다. 그런데 臨界溫度에 달하면 아무리 열을 올려도 熱殘留磁氣의 세기는 더 이상 변하지

25) 渡邊直經, 「天狗谷古窯址の 磁氣年代學的考察」, 『有田天狗谷古窯』, 有田町教育委員會, pp.159~191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않는다. 磁鐵鑛에서는 섭씨 578度, 赤鐵鑛에서는 섭씨 675度가 임계온도인데, 이 때의 熱殘留磁氣를 飽和熱殘留磁氣라 한다. 窯의 경우 이들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열을 받은 燒土는 당연히 포화열잔류자기를 띠고 있는 셈이므로 窯나 爐의 燒土가 띤 熱殘留磁氣는 대체로 안정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로 粘性磁氣라고 하는 不安定한 方向性을 가진 磁氣가 있다. 粘性磁氣는 熱殘留磁氣에 비해 일반적으로 약하지만 이를 제거하지 않고 測定하면 燒土의 帶磁方向은 兩磁氣가 合成된 방향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測定値를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粘性磁氣는 不安定하기 때문에 燒土를 섭씨130~150度에서 열을 가해 無磁場內에서 냉각하든가 혹은 적당히 센 交流磁場內에 놔두면 제거된다.

이상의 원리에 의해, A窯 6室과 B窯 4室에서 試料를 채취했는데 A窯는 E·A·D窯그룹의 하나요, B窯는 B·C그룹중의 하나이다. 양식상으로는 이 두 그룹이 시기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地磁氣測定에서도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상당히 궁금한 점이다. 天狗谷窯 燒土의 熱殘留磁氣는 극히 미약해 현장에서 바로 帶磁方向을 추정할 수 없어 틀을 만들어 A窯에서 10개, B窯에서 8개의 試料를 채취했다. 채취할때는 동요되지 않도록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므로 두개의 열쇠모양의 鑰製板을 만들고 그 內部는 正立方體가 되도록 틀을 만들었다. 틀가운데 콤파스와 水準器를 놓고 水平을 만들어 틀의 일변이 현재의 磁北이 되도록 틀의 위치를 조정하여 燒土塊를 채취하는데 채취된 燒土塊가 동요하지 않도록 석고틀을 흘려넣어 틀을 꽉 채우게 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그리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磁氣測定 원리에 의해서 실험실에서 측정했다. 같은 소성실에서 채취한 A窯의 10개와 B窯의 8개의 시료의 帶磁 방향을 각각 측정하여 A와 B窯의 帶磁方向의 偏角²⁶⁾과 伏角²⁷⁾을 각각 재서 그 平均值와 信賴限界를 찾아내고 있다.

天狗谷窯의 試料에서 偏角 delta D(ΔD)의 수치를 얻기 위해 사용된 偏角의 기준은 1960년의 地磁氣測定에 의한 사세보(九州의 佐世保)의 5.9度西, 후쿠오카(九州의 福岡)의 5.9度西의 측정치이고 伏角의 기준은 사세보 46.8度, 후쿠오카의 47.5度였다. 그 도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2>

窯燒成室	試料數	偏 角		伏 角	信賴限界
		ΔD	D	I	
A窯 第 6室	10	8°. 8E	3°. 0E	39°. 2	1°. 1
B窯 第 4室	8	5°. 2E	0°. 6W	40°. 7	2°. 2

<표 1> 天狗谷窯의 燒土試料로부터 얻은 偏角·伏角의 平均值와 信賴限界
(『有田天狗谷古窯』p.162 表1에 의함)

26) 偏角에는 ΔD 와 D가 있는데 偏角 ΔD 는 地磁氣의 水平分力의 方向이 유적에 있어서 磁氣子午面 즉 일반 자석이 가르키는 北의 方角으로 부터 東 혹은 西로 얼마큼 기울고 있는가를 나타낸 角이며 偏角D는 北極星의 北의 方角으로부터 어느 정도 기울고 있는가를 나타낸 角이다.
27) 地磁氣의 方向의 水平面에 대한 上·下 方向으로 기우는 角度이다.

試料番號	A 窯 第 6 室						B 窯 第 4 室		
	熱 消 磁 前			140° C에서 1.5시간 熱消磁後					
	偏角 D	伏角 I	平均値로부터 떨어진 α	偏角 D	伏角 I	平均値로부터 떨어진 α	偏角 D	伏角 I	平均値로부터 떨어진 α
1	1°.9E	37°.0	1°.0	1°.4E	36°.9	1°.9	2°.2W	42°.8	2°.4
2	4.4E	38.6	0.6	3.0E	38.4	0.3	1.2E	41.1	1.4
3	3.5E	38.4	0.0	3.8E	38.2	0.5	1.2E	41.3	1.2
4	3.2E	37.6	0.8	2.5E	37.2	1.1	0.9E	39.7	1.5
5	4.5E	38.0	0.6	3.9E	38.6	0.8	4.0E	44.8	4.5
6	5.2E	40.8	2.7	5.0E	40.2	2.5	0.5E	41.5	1.1
7	2.7E	36.9	1.7	1.2E	36.7	2.1	1.4W	39.8	1.1
8	5.7E	40.1	2.4	4.8E	40.1	2.8	2.3W	34.5	6.4
9	2.3E	36.7	2.0	1.6E	36.1	2.3			
10	3.5E	39.3	0.9	3.5E	39.4	1.2			

〈표 2〉天狗谷窯의 各試料 磁氣測定結果 (『有田天狗谷古窯』p. 163. 表2에 의함)

이상의 두 표에 나타난 측정 결과로 보아 A窯 第 6室과 B窯 第 4室의 地磁氣의 방향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그룹(E·A·D 窯)과 B그룹(B·C窯)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天狗谷窯의 年代를 추정하기 위한 永年變化曲線

天狗谷窯의 年代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永年變化曲線을 정확히 설정해야 하는데 이 설정을 위해서는 天狗谷窯가 활동했던 시기의 옛 地磁氣觀測 기록과 熔岩의 熱殘留磁氣의 측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① 地磁氣觀測기록

地磁氣觀測기록으로는 외국함대에 의한 측량및 일본이 해안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 등 여러 기록이 있다. 예컨대 1613년12월 5일 영국 함대선장 Saris의 일기중에 있는 조사기록으로, 平戶島(有田으로부터 20Km 지점)의 緯度는 33도 30분, 偏角은 2도 50분東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⁸⁾ 이 밖에도 17세기의 기록으로는 1615년, 1639년, 1643년의 기록들이 있고 18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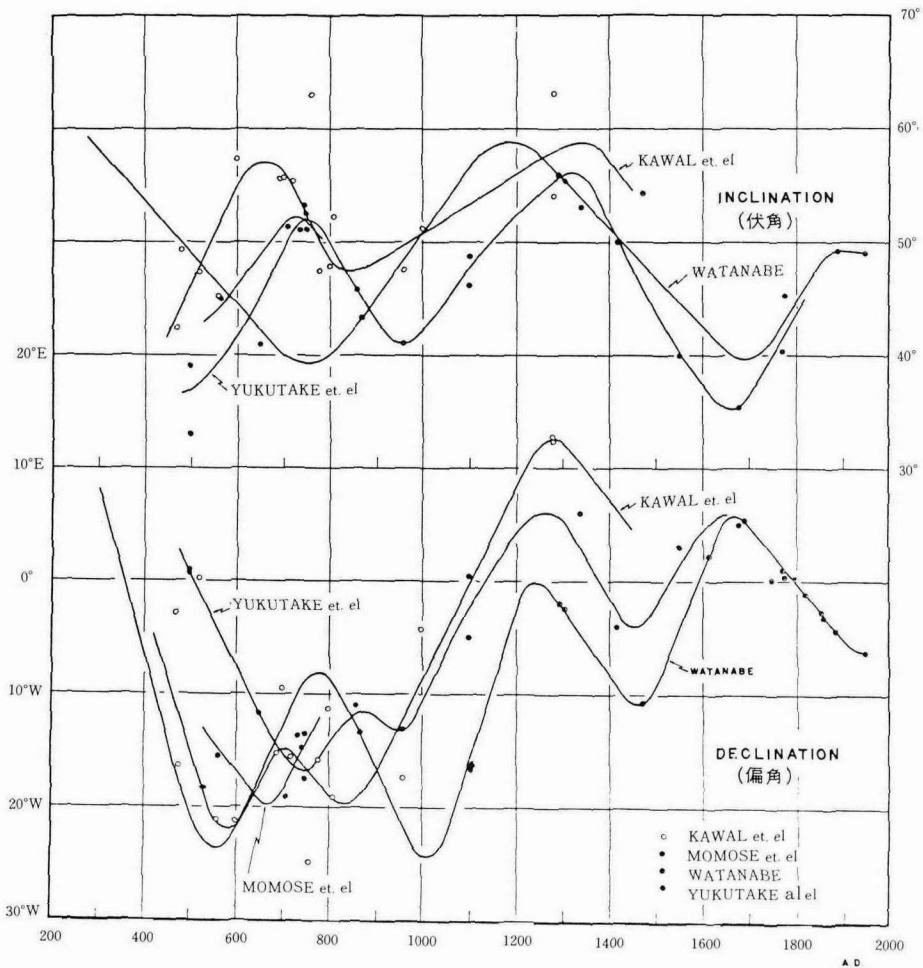
28) Saris, J.(1613), 「The voyage of Captain John Sairs to Japan 1613」, 『大日本史料』, 12編 11, pp.467~528.

의 것으로는 1709년, 1712년의 기록이 있으며 19세기에는 1802년, 1806년, 1827년, 1854년, 1860년, 1882년, 1883년, 1885년 등의 地磁氣觀測 기록 들이 남아 있다.

② 熔岩의 熱殘留磁氣에 의한 永年變化 資料

일본에서의 火山의 噴火기록은 옛 문서에 기록이 있으므로 용암의 연대는 이들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다. 熔岩은 분출 당시의 地磁氣의 方向으로 熱殘留磁氣를 띠고 있으므로 이 方向을 측정하면 당시의 偏角과 伏角을 알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熔岩의 측정예로는 1471, 1749, 1778, 1779년 등 비교적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다.

熔岩의 자료들을 이용하는 데는 다음의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火山은 전체가 熱殘留磁氣를 띠기때문에 주위의 地磁氣와는 다른 局所的인 이상을 띄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것을 배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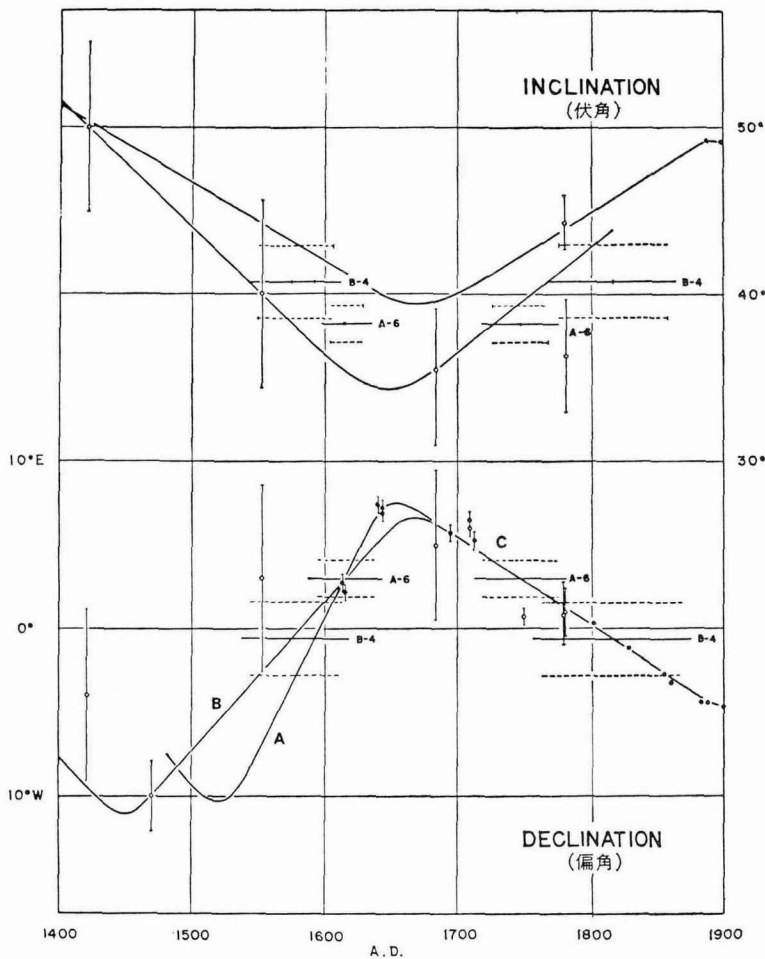
〈표 3〉 현재까지 발표된 편각·복각의 永年變化曲線

(『有田天狗谷古窯』 p. 168 삽도4에 의함)

는 고려가 따라야 하는 점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地磁氣測定値와 熔岩의 熱殘留磁氣의 측정치를 가지고 天狗谷窯 燒土의 연대를 추정하게 되는데 대체로 17세기를 중심으로 한 永年變化 曲線을 설정하는데는 偏角에 의한 비교가 유효하다. 그 이유는 伏角에 대한 측정기록은 1885년 이후에야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세기 이후의 地磁氣測定値와 熔岩의 熱殘留磁氣로부터 얻어진 측정치를 도표에 그려서 17세기 경의 磁氣의 測定을 구하게 된다. 이때에 중요한 측정치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1613년에 平戶에서 측정된 측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1615년, 1639년, 1643년, 1694년의 측정치가 永年變化 曲線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永年變化의 곡선이 발표된 바 있어 이들을 일괄로 표시한 도표가 있다 <표 3>. 표3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永年變化 曲線은 모두 A, B, C의 세 곡선으로 집약해서 그릴 수 있다. <표 4>



<표 4> 天狗谷窯의 磁氣年代를 결정하기 위한 17세기를 중심으로한 永年變化 曲線
(『有田天狗谷古窯』 p.169 삽도 5에 의함)

그런데 天狗谷의 A와 B窯의 燒土로 부터 얻은 偏角의 측정치를 A, B, C의 기존의 永年變化曲線에 기준해서 磁氣年代를 추정해 낼 수 있다. 즉 A와 B窯의 偏角의 측정치와 信賴限界의 上限과 下限의 측정치에 해당되는 위치에 橫線을 긋고 이들 線이 永年變化의 曲線과 교차하는 점의 연대를 구하는데 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永年變化曲線이 A, B, C 세 曲線이므로 A와 B窯가 세 곡선과 모두 교차하였다. 그 표는 다음과 같다. <표 5>

窯燒成室	年 代		
	A 曲線에 의함	B 曲線에 의함	C 曲線에 의함
A窯 第 6室	1614±7	1615±12	1747±20
B窯 第 4室	1592±13	1574±24	1815±40

<표 5> 天狗谷窯의 磁氣測定결과를 偏角의 永年變化曲線에 비추어 본 年代
(『有田天狗谷古窯』 p.170, 表3에 의함)

표 5에 의하면 A窯는 1614±7, 1615±12, 1747±20, B窯는 1592±13, 1574±24, 1815±40 년이라는 측정치가 나왔다. 그런데 B窯의 1592년과 1574년은 인정될 수 없으니, 그 이유는 B窯가 A窯보다 가마 축조 층위로 봐 상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A窯의 1614, 1615, 1747년 가운데 1614년과 1615년의 추정연대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A窯 출토 도편의 양식으로 보아 일본 磁器 생산의 시원적인 작품이라고 보기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자기 생산의 시작이 언제인가? 라는 문제는 명쾌히 당장 밝히기는 어렵다. 조선인 기술자들이 丁酉再亂때 건너간 이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天狗谷窯 출토품에서 16~17세기 전반경의 조선 도자기의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또 A窯보다 선행하는 E窯 출토 청화백자 사발의 橫線文, 窓繪文, 山水文이라든가, 병의 如意頭文 그리고 그릇들의 형태등을 조선시대 도자기에 비교해 볼때, 대체로 18세기 이후로 내려오기 때문이며 또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예들도 18세기 이후 조선 청화백자들이다.

E窯는 대체로 우리나라 金沙里시대 전·후와 비교가 되겠는데 金沙里가마는 1720년경 전후로부터 1751년경까지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금사리 일대에서 약 30여년동안 도자기 제작의 중심을 이루었다. 金沙里가마의 특징가운데는 사발이나 병의 굽다리 측면에 청화로 한 줄을 긋고 있는 기법이 있으며 <도 28> 병이나 항아리의 2/3선 정도에 한 줄의 횡선을 돌리고 그 위에 무늬를 그리려는 문양수법이 있다<도 29>. 또 窓繪기법도 조선백자에서는 역시 18세기에 들어와 금사리가마 이후부터 많이 사용하던 것으로 능화형의 윤곽을 그리고 그 안에 여러가지 무늬를 넣는 양식이다<도 30>.

이와 같이 天狗谷의 E窯나 A窯의 출토품은 조선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무늬양식으로 보아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18세기로 내려온다고 판단되니, 그렇다면 A窯의 연대추정 가운데 1614년과 1615년의 연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李參平이 살았던 시대와

1614년이나 1615년이라는 연대와는 우연히도 일치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李參平이 백자를 제작했던 최초의 일본 백자가마는 天狗谷窯라고 볼 수 없을것 같다. 李參平이를 가르키는 「金ヶ江三兵衛」라는 墓碑가 天狗谷 입구에 있다고 해도 원래의 墓碑자리인지 고증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고 天狗谷 최하층의 E窯로부터 출토되는 陶片의 성격으로도 17세기 초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아마도 1965~1970년에 天狗谷窯를 발굴할때 李參平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마음에 두고 발굴자들이 발굴에 임했기때문에 17세기 초로 맞추어 보려고 노력했던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이러한 증거는 보고서 도처에서 보이고 특히 磁氣年代를 시도한 渡邊直經 교수 역시 古文書의 金ヶ江三兵衛가 최초로 磁氣를 燒成한 것이 元和2年(1616)으로 추정한다는 기록에 의존하여, 과연 天狗谷窯의 磁氣年代測定値가 古文書의 기록인 1616년을 뒷받침 할 것인지 아닌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측정 실험에 임하고 있다.²⁹⁾ 그러므로 결론에서도 A窯의 폐절시기는 1614~1615년으로 못을 박으면서 磁器 제조의 가장 최초의 가마로 생각한다 라고 하고 있다.³⁰⁾

그러나 A窯가 17세기 초라는 연대에는 거듭 언급하지만 무리가 있다. 永年變化 C曲線과 교차하여 얻어진 1747 ± 20 년이라는, 오히려 타당한 연대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의 대상에서도 제외 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地磁氣 실험에 시료로 이용된 A窯보다 하위에 있는 E窯에서 출토된 도편 가운데 대접의 상·하 횡선이라든지 기타무늬의 내용으로 보아서 조선 18세기 전기 金沙里가마 등지에서 흔히 보이는 기법과 어딘지 일백상통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C곡선과의 교차에서 얻어진 1747 ± 20 년이 타당한 연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B窯 폐절연대로 추출된 1815 ± 40 년과도 그렇게 멀지 않게 된다. 사실상 A그룹과 B그룹의 출토도편이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 같이 1614~1615년의 A窯 폐절시기와 B窯의 1815년의 폐절시기와는 거의 200여년의 시간이 벌어진다. 보고서에서 보고된 발굴 내용으로 보아 A그룹과 B그룹의 출토 도편의 양상은 시간적인 약간의 거리는 무늬 양식에서 분명히 엇 보이고 있지만 200여년 썩이나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A窯의 폐절연대는 1747 ± 20 년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순리라고 생각되며 그래야만 B窯 폐절연대인 1815 ± 40 년과 큰 무리없이 연결된다. 그렇다면 A窯의 폐절시기를 1747-20으로 볼때, 활동시기는 1727년 이전 즉 18세기 극초가 된다. 이 시기는 조선의 광주에서는 오향리, 금사리의 분원시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E窯의 활동시기는 A窯보다 약간 앞서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天狗谷窯 보고서에서 판단한 1614~1615년의 연대보다는 약 100여년을 뒤로 잡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1965~70년 사이에 天狗谷窯를 발굴할때, 三上次男 이하 이 발굴에 참여했던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의 17세기 이후의 도자기 발달 양상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때문에 이러한 판단의 오류를 빚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李參平이가

29) 주1 앞책, p.159.

30) 주26 앞책, p.174.

활동했다고 생각하는 1616 년을 너무 의식해서 이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론으로 몰고 온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가마구조와 백자를 통해 天狗谷窯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Ⅳ. 朝鮮白磁窯 및 出土遺物과의 관계

1. 朝鮮白磁窯 구조

조선시대 가마로 지금까지 발굴조사 되어서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알려진 곳으로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두 곳, 백자 가마터가 세 곳 모두 다섯 곳 뿐이다. 분청사기 가마는 충남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와 전남 광주시 충효동에 있고 백자가마터로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번천리와 초월면 선동리, 그리고 전남 승주군 송광면 후곡리 등에 있다. 이 중에서 광주시 충효동 가마만을 제외하고는 이미 보고서를 통해 가마구조의 특징이 알려졌으므로 이들 가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학봉리 요³¹⁾

주지하는바, 학봉리 분청사기 요지는 1927년에 발굴되어 모두 다섯 기의 가마를 확인하였다. 그 모습은 대개 비슷하므로 비교적 상태가 좋은 제1도요지 B요와 제5도요지의 요를 통해 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도요지 B요<도 31>는 길이가 21.31m, 넓이는 상·중·하폭이 각각 1.36, 1.36, 0.8m로 굴뚝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양벽은 점토로 쌓았고 천장은 아취형이며 두개의 굴뚝과 2.21×1.24m의 봉통이 있다. 내부의 격벽이 여섯 개이므로 모두 다섯 방이 있고 각 방에는 출입구, 분구, 색견공을 설치하고 있으며 가마바닥은 모래를 깔았다.

제5도요지의 요<도 32>도 제1도요지 B요와 거의 같은 형태로 길이가 41.76m이고 모두 13개 방으로 축조되어 약 두배로 길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 두 요를 통해볼때 학봉리의 분청사기 가마는 경사면에 구축된 칸가마식의 오름가마(登窯)였음을 알 수 있다.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는 발굴 당시 수집된 墓誌片(成化 23 年—1487, 弘治3年—1490, 嘉靖15年—1536)에 의해 대체로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경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따라서 학봉리의 가마들은 天狗谷窯의 구조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시간적인 차이와 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有田 근방에는 분청사기의 영향을 받아 그릇을 굽던 도기요지들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두 지역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기 위해서는 학봉리 가마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② 번천리 5호 요³²⁾

31) 野守健, 『鷄龍山麓陶窯址 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9.

32)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廣州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樊川里5號·仙東里2, 3號—』, 1986.

번천리5호요는 1985년 발굴한 가마로 조선시대 백자가마로는 처음으로 그 구조가 밝혀졌다. 가마의 윗 부분은 도로에 의해 찢려 나가서 알 수 없으나 10도 경사에 축조된 오름가마이다. 확인된 가마의 길이는 약 17m, 폭 1.7~2.2m이며 봉통은 두 개가 발견되는데 그 중의 하나는 3.4×1.8×0.6m이다<도 33>. 가마바닥은 진흙으로 다진 위에 모래를 깔았고 도지미를 놓아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가마벽은 진흙을 쌓아 아취형을 이루고 격벽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번천리5호요는 가마 옆으로 두 곳의 작업장과 함께 발굴되었는데<도 34> 작업장 주변에서 수집된 도편 가운데 嘉靖33年(1554)銘墓誌片이 있어 대략 16세기 중엽경에 활동했던 가마임을 밝히게 되었다.

결국 번천리5호요는 10도 경사에 축조된 오름가마인데 비해 天狗谷窯는 계단상의 連房式登窯이므로 가마구조에 있어서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활동시기도 번천리5호요는 16세기 중엽경인데 비해 天狗谷窯의 A그룹에 속하는 요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18세기 전후로 추정되기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거리가 있다.

③ 선동리 3호요³³⁾

선동리 요도 번천리5호 요와 같이 1986년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긴급 발굴된 가마이다. 이곳에는 5~6개소의 백자가마터가 있는데 대개가 파괴되었다. 다행히도 선동리3호 요에서 두개의 가마 유구가 들어 났는데, 선동리 3-가로 명명된 가마는 끝부분만이 남아 있어 전체 윤곽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선동리3-나로 명명된 가마는 봉통부분이 파괴되었으나 소성실은 자연 경사를 따라 동·서 선상에 남·북으로 소성실 셋이 삼단으로 축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도 35>. 제1실은 일부가 찢려 나갔으며 상폭 1.4m, 하폭 1.8m, 길이 3.5m의 크기이고 진흙으로 벽을 쌓았다. 현재는 2~3cm의 단단한 유리질화된 벽이 일부 남아 있으며 3면이 둥그스름하게 돌아가면서 막혀있는 구조이다. 바닥은 고운 모래가 깔려있다. 제2실은 1실보다 약 80cm정도 높이 구축되었고 상폭 1.8m, 하폭 2.3m, 길이 3.8m의 크기이다. 위로 올라가면서 폭이 약간 줄어 든 장방형으로 3면이 막힌 방이다. 바닥에는 둥근 도지미를 놓은 흔적이 있으며 분구 혹은 출입구로 보이는 장방형의 시설물 흔적이 남아 있다. 제3실은 제2실보다 약간 낮게 설치되었으며 상폭 1.9m, 하폭 2.2m, 길이 2.6m 크기이고 불에 탄 흙의 흔적으로 보아 소성 온도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추측되니 굴뚝 부분이 아닌가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때 선동리 3호가마는 11도 경사에 축조된 계단식의 오름가마였음이 파악된다. 따라서 天狗谷窯의 계단상 連房式登窯와 거의 같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매우 흥미있는 것으로 廣州 仙東里窯와 有田 天狗谷窯와는 직접 연결되는지 혹은 아닌지는 실증할 자료가 없지만 구조적으로는 계단상 連房式 登窯라는 점은 같다. 天狗谷 A窯는 폭이 3.20~3.80m, 길이 2~3.60m, 沙床面만의 길이 2.20~2.95m이다<도 7>. 그렇다면 선동리요와는 폭에서 天狗谷窯가 1m이

33) 주 32 앞책.

상 크지만 소성실 하나의 길이는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또 경사 각도도 天狗谷窯가 14도이고 仙東里窯가 11도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天狗谷窯와 같이 계단상의 連房式登窯가 축조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선동리 3-가와 3-나호 가마에서는 제작연대를 밝힐 자료는 없었으나 그 옆에 선동리 2호로 명명된 가마터에서는 가마 자체는 모두 파괴되었으나 퇴적 도편만은 많이 수습할 수 있었다. 선동리 2호가마의 도편으로 부터는 대접과 접시 굽바닥에 干支十左(右)의 명문편들이 수집되었다(도 36). 이들 간지명문은 1640~1649년에 해당되는 간지임이 밝혀져 선동리 가마터들은 대체로 17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³⁴⁾ 그러므로 17세기 전반 조선 광주에서는 11도 경사에 이미 계단상의 연방식등요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집된 도편과 天狗谷窯 출토 도편과 비교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다음 절 출토유물의 비교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④ 후곡리 요³⁵⁾

후곡리요는 20~30cm 높이의 7개 불창살로 칸이 나뉜 連室(房)式登窯이다. 이 가마는 3개의 방과 아궁이 하나로 경사 15~20도의 완만한 경사에 약간의 단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가며 구축되어 있다(도 37). 가마벽은 20~30cm 정도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부의 전체 구조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진흙으로 만들었다. 요의 규모는 총길이 10m, 소성실은 위로부터 2.5×2.5m, 2.3×2.3m, 2.1×2.1m의 크기이며 아궁이는 길이 3.1m, 넓이 1.9m, 봉통입구 0.8m이다. 이러한 크기의 수치로 보아 후곡리요는 정방형의 방이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크기는 약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곡리요는 가마구조 외에 작업장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예컨대 수비통2개, 흙통1개, 장방형의 鍊土物, 작은 가마, 도토건조장 등을 갖추고 있었다(도 38).

후곡리요의 제작 활동시기는 역시 절대 편년자료가 없어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그릇의 형태, 굽의 형식(오목굽), 추상화된 철화무늬 등으로 보아 廣州 官窯의 것과 비교할 때 대개 17세기 가마로 추정된다.³⁶⁾ 그렇다면 17세기경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확실한 계단상의 등요는 아니라 할찌라도 약간의 턱을 만들고 여기에 창살을 세워 일자로 쭉 뻗은 오름가마보다는 계단상의 흔적을 약간 남기고 있는 가마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2. 出土遺物 비교

① 변천리5호요 백자와 天狗谷窯 백자

변천리5호요는 앞에서 밝혔듯이 1554년 전후에 생산활동을 했던 곳이다. 또 天狗谷의 A窯는

34) 鄭良謀, 「朝鮮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19, 李朝, 東京:小學館, 1980, pp.172~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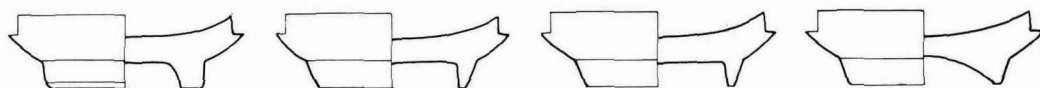
35) 崔淑卿外, 「後谷里白磁窯址」, 『住岩담水沒地域文化遺跡 發掘調査報告書(V)』, 全南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 1988, pp.162~233.

36) 주 35, 앞책, pp.183~184.

1614~15±12, 혹은 1747±20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 지역간의 직접 비교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겠으나 변천리5호 출토 도편을 단순 소개하므로서 어떤 희미한 실마리만이라고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변천리5호 요 발굴에서는 모두 萬여점의 도편을 수집하였으나 모두가 백자이고 이 중에서 병·항아리·합의 100여점과, 사발과 접시류 2000여점 만이 분류 내지는 보고서 작성자들이 취급한 것들이다. 이것도 주로 굽다리 파편이므로 대개 굽다리를 깎은 형식 또 굽다리 밑에 모래를 깔았느냐 아니면 태토 빚음받침을 했느냐에 의해 분류하므로써 굽을 중심으로 변천리5호요의 특징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天狗谷窯의 출토도편은 실측도면을 통해보면 대개 사발류와 병류가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도면을 통해 우선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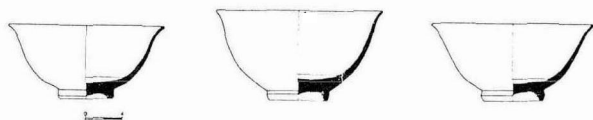
변천리5호 요의 백자사발과 접시종류의 굽의 형식은 크게 4식으로 분류된다 <삽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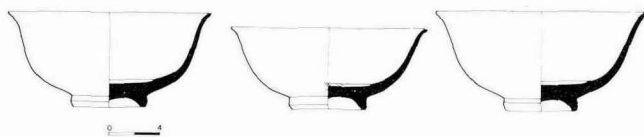
第I式·胎土받침법 第II式·모래받침법 第III式·胎土받침법 第IV式·모래받침법
 <삽도 1> (『광주 조선백자요지 발굴보고서』, p.55 도면에 의함.)

4식에 속하는 사발의 형태를 각 각 도면을 통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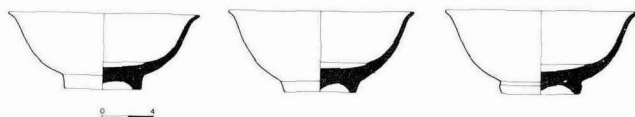
I式 <삽도 2>



대형사발(『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보고서』 p.60, B形大鉢 도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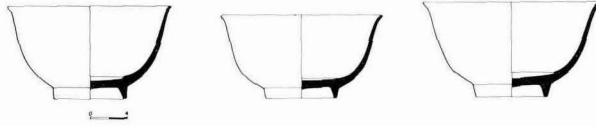


중형사발(『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보고서』 p.66, B形大鉢 도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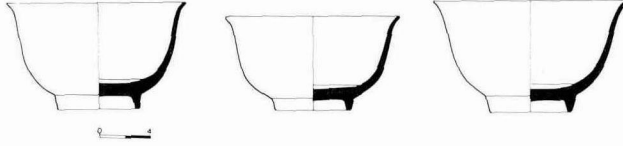


소형사발(『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보고서』 p.70 B形大鉢도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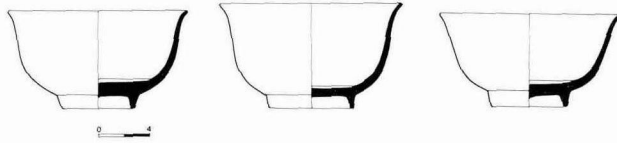
I式 <삽도 3>



대형사발(『광주 조선백자요지 발굴보고서』 p.85, A形大鉢도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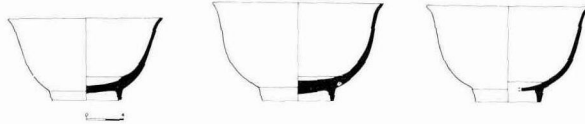


중형사발(『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보고서』 p.88, A形大鉢도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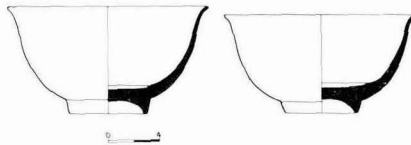
소형사발 (『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보고서』 p. 89, A形小鉢도면에 의함)

III式 <삽도 4>



대형사발(『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보고서』 p.109, A形大鉢 도면에 의함)

IV式 <삽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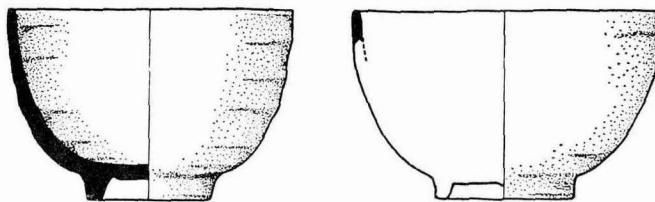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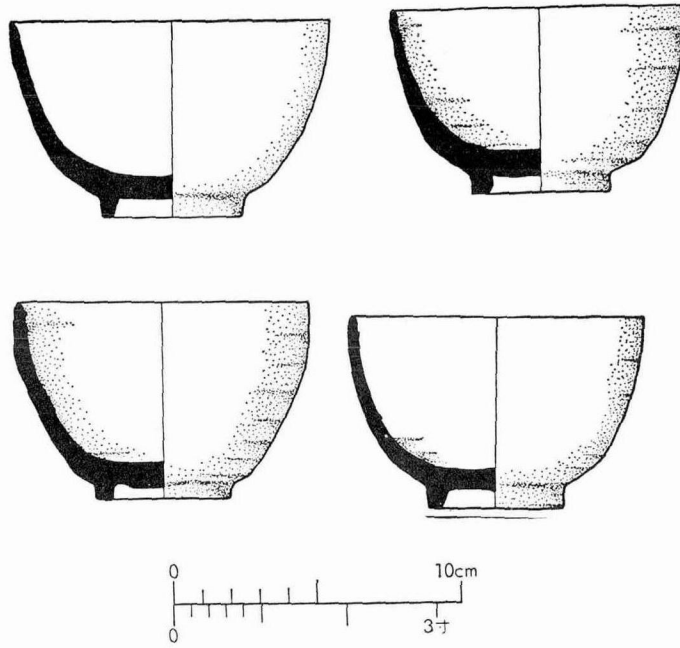
중형사발 (『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보고서』 p.116, A形中鉢 도면에 의함)

이상은 실측도면을 통해 본 사발의 형태이다.

그러면 天狗谷窯 E·A·D·B·C의 완의 형태를 실측도면을 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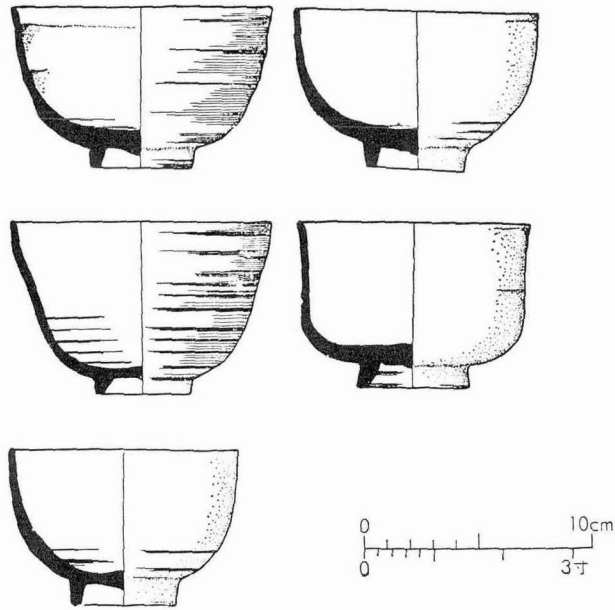
7. E窯
13室 <삽도 6>





(『有田天狗谷古窯』p. 48 圖 13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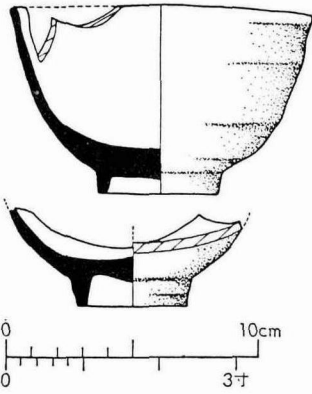
15室 <삽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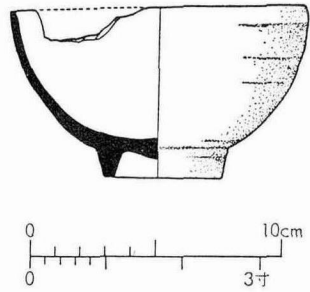
(『有田天狗谷古窯』p. 54 圖 14에 의함)

L. A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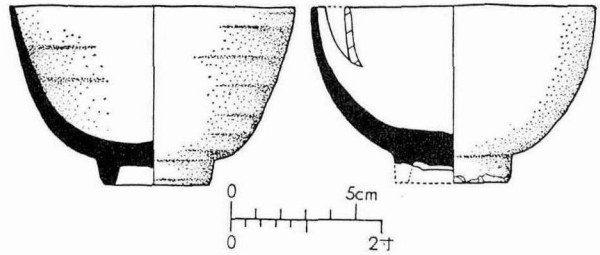
4室 <삼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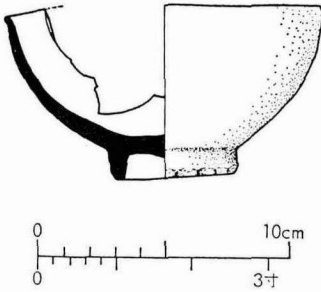
5室 <삼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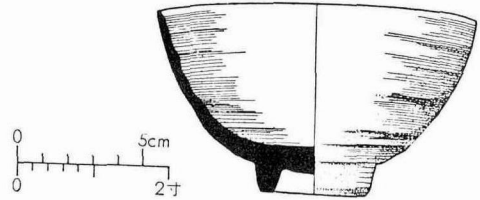
12室 <삼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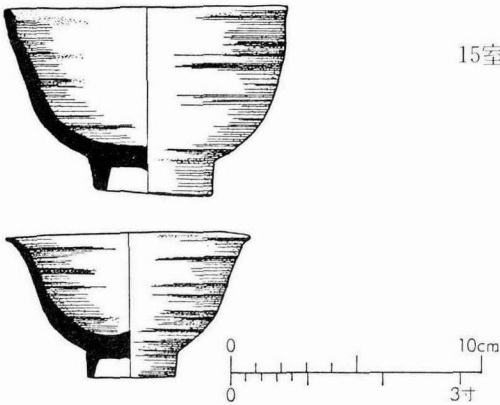
7. 8室 <삼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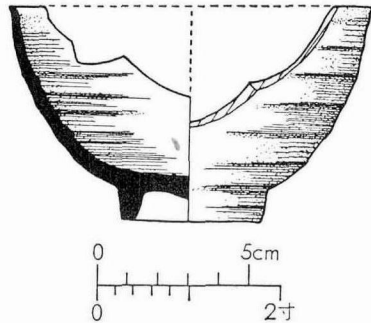
14室 <삼도 13>



13室 <삼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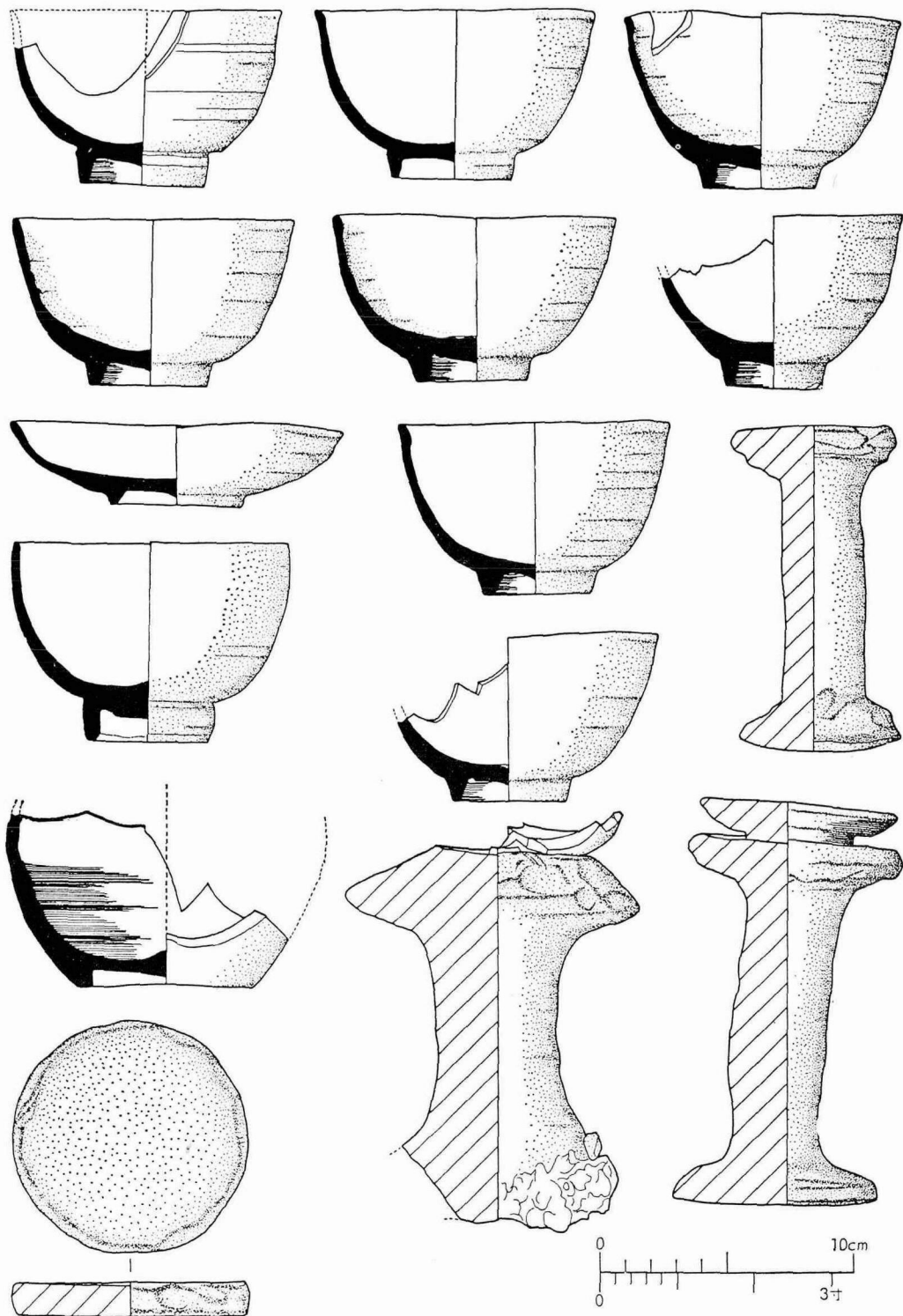


15室. <삼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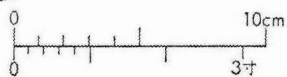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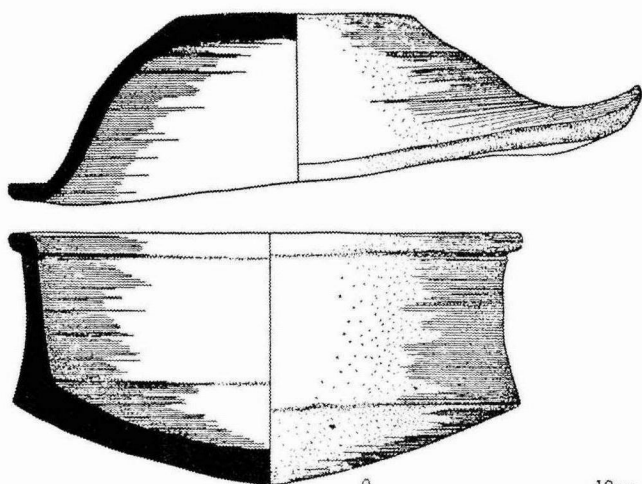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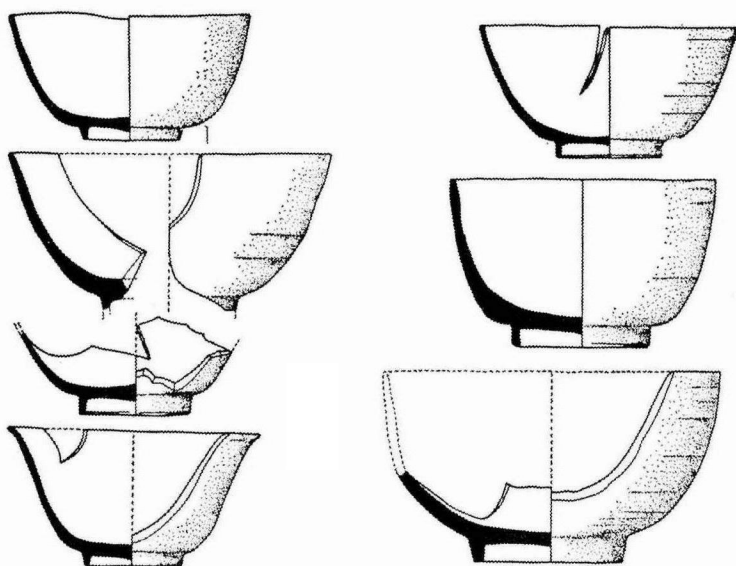
(『有田天狗谷古窯』 pp. 63~72, 圖 16~23에 의함)

ㄷ. D窯 <삼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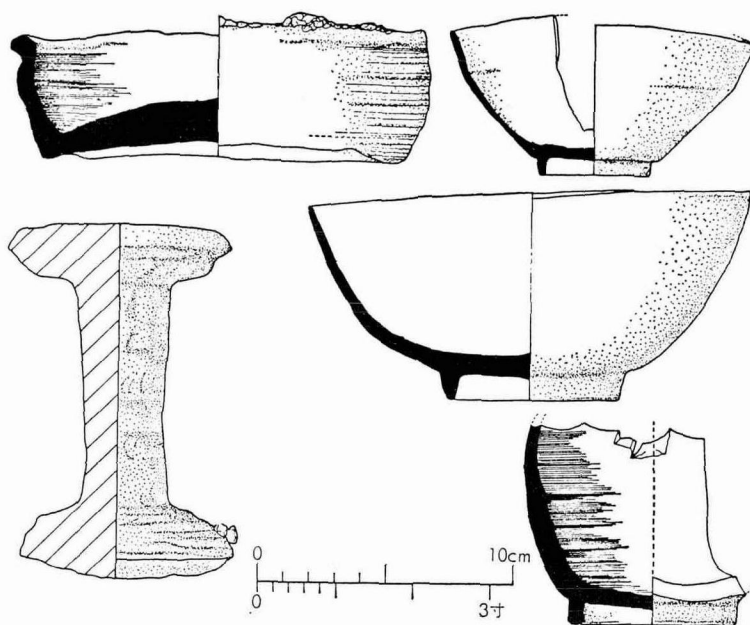
(『有田天狗谷古窯』p. 75 圖 24에 의함)

己. B窯 11室 <삼도 16>



(『有田天狗谷古窯』p. 85 圖 29에 의함)

㉑. C窯 <삽도 17>



(『有田天狗谷古窯』p. 101 圖 35에 의함)

이상의 실측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천리5호 출토 사발과 天狗谷窯 출토 완은 서로 크기의 차이가 있고 형태는 변천리 사발의 측면선이 밖으로 벌어진데 비해 天狗谷窯의 완은 한 두 예만 제외하고는 대개 투박한 선이 자연스럽게 직립한 모습이다. 따라서 사발과 완의 경우, 두 지역간의 형태상의 영향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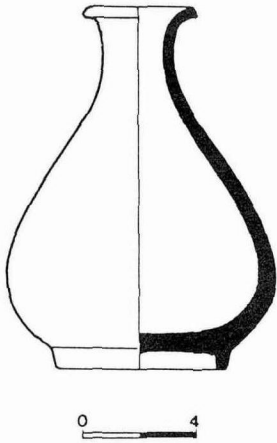
병은 변천리5호에서는 아주 드물게 수집된다. 다행히도 거의 원형을 갖추고 있는 병<삽도 18>이 수집되었는데 이 병은 배 아래부분의 볼륨감이 당당하여 조선 전기 병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에 비해 天狗谷의 병들은<삽도 19>목이 길고 배에는 볼륨이 없이 훌쩍히 가늘어 서로 유사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타 가마내 부속용구들로는 변천리5호요에서는 도지미와 갑발이 대표이다. 도지미는 지름이 4cm 정도의 작은 것으로부터 15cm나 되는 큰 도지미가 있는데 모두가 耐火土로 둥글게 빚었다 <도 39>. 이러한 도지미는 天狗谷窯에서도 반드시 동반되는데 <도 40> 양지역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암암리에 어떤 연관성을 감지할 수 있다.

갑발은 변천리5호 경우 드물게 수집되지만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天狗谷窯에서는 E窯 15室<도 41>, B窯<도 42>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天狗谷窯 출토 갑발은 육안으로 보아서는 조선 전기 15~16세기 백자가마인 牛山里, 道馬里, 樊川里(內谷) 등지에서 수집되는 갑발과 매우 유사한 점에 주의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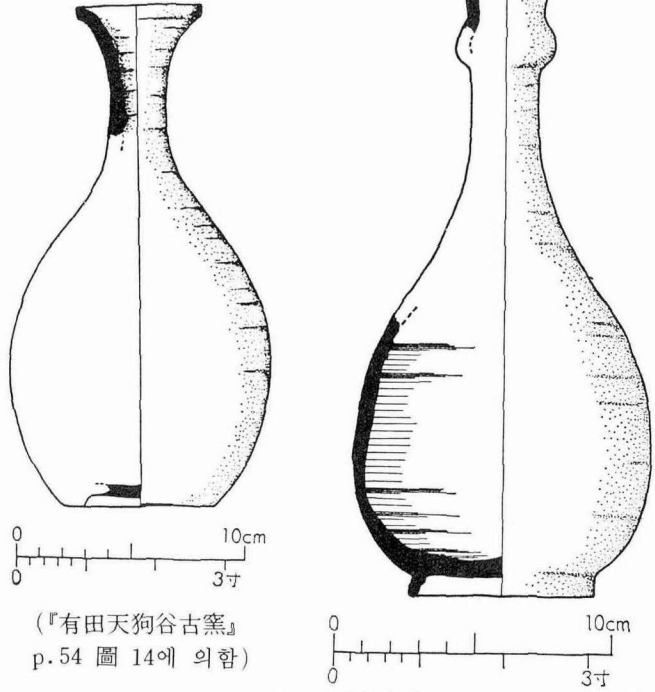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 변천리5호요와 天狗谷窯와는 유사성이 감지된다. 이를테면 굽형식, 도지미 사

<삽도 18>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p.99 B-c 병편도면에 의함)

<삽도 19>



(『有田天狗谷古窯』 p.54 圖 14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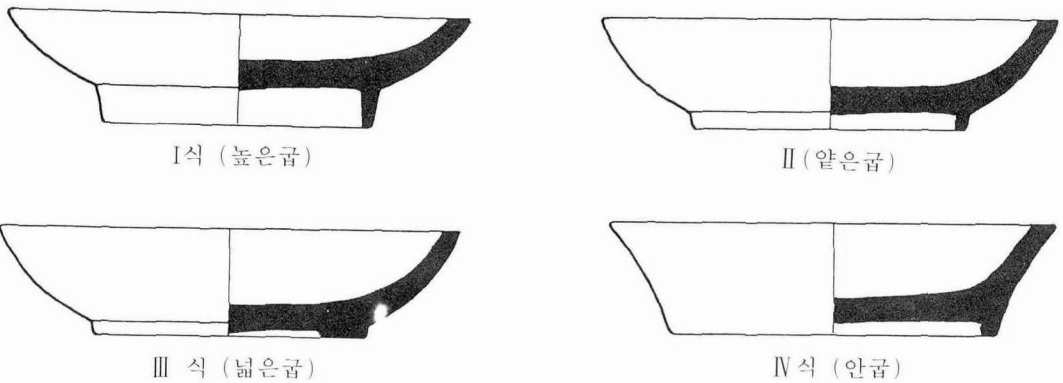
(『有田天狗谷古窯』 p.96 圖 33에 의함)

용, 갑발 사용 등이며 사발의 기형은 변천리5호 것이 훨씬 세련미를 보인다. 청화백자는 변천리 5호에서는 한 두점 수집되는 외에는 거의 없는데 비해 天狗谷窯에서는 주로 청화백자인 점이 특색이다.

② 仙東里窯백자와 天狗谷窯백자

仙東里窯는 제2호와 제3호가마터가 알려졌는데 제2호가마터는 도편 퇴적층만 확인된 반면에 선동리 3호 가마터에서는 가마자리 두 곳과 도편 일부가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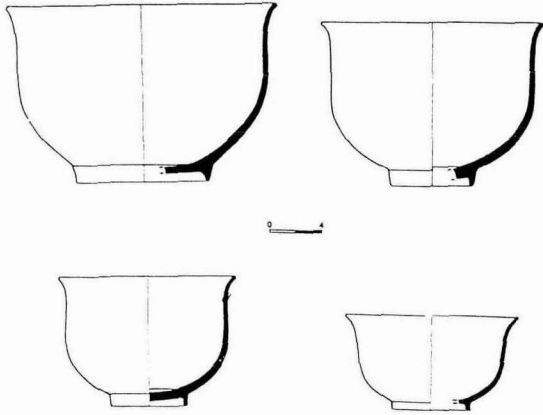
선동리2호 굽다리 도편으로부터는 대개 굽의 형태가 다음의 4식으로 분류된다. <삽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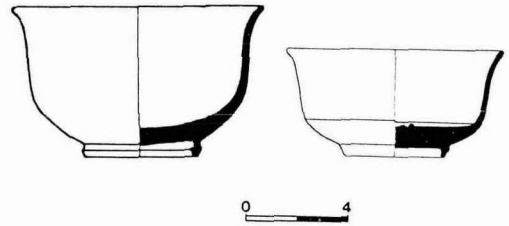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p.171 도표 1에 의함)

이러한 4식에 속하는 사발과 잔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삽도 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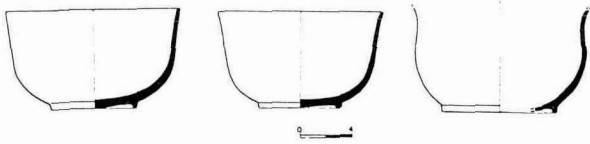
I 식에 속하는 사발 <삽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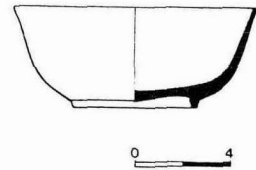
I 식에 속하는 잔 <삽도 22>



II 식에 속하는 사발 <삽도 23>



II 식에 속하는 잔 <삽도 24>



III 식에 속하는 사발 <삽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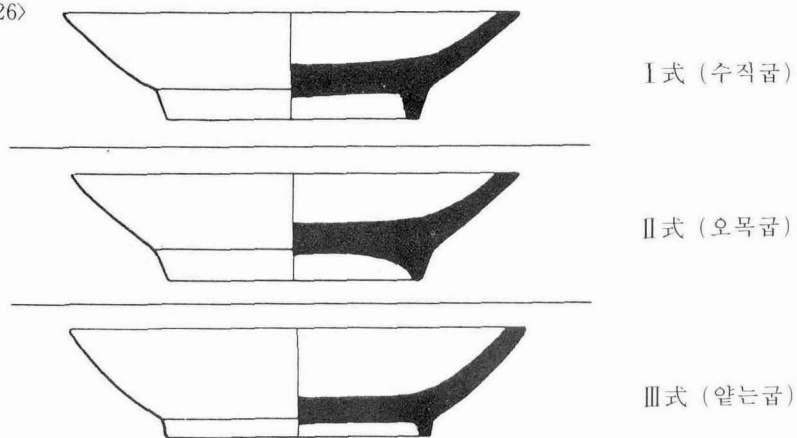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pp. 172-174 도면에 의함)

이상은 주로 사발과 잔의 굽형식과 도면을 통해 그릇 형태를 소개했는데 무어니해도 仙東里2호 요의 특징은 다양한 철화백자편의 출도와 1640~1649년에 해당되는 干支가 굽다리 밑에 새겨져서 제작활동 시기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도 36>. 철화그림의 내용은 龍·竹·梅花 등으로 당시 畫員의 필치를 연상케하는 매우 세련된 필선의 구사를 보여주어 조선시대 관요로서의 손색없음이 폐기물 도판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에 비해 天狗谷의 예는 草花文, 山水文, 소나무, 매화, 버드나무, 기타 도안화된 무늬 등 다양하지만 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딘지 지방적인 색채를 더욱 농후

하게 띄고 있어 仙東里窯 출토 도편과는 직접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다.

仙東里 3-가호 요지 출토 도편의 굽형식은 3종류로 분류되며<삽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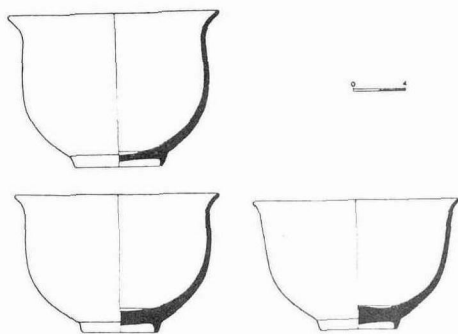
<삽도 26>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p. 250 도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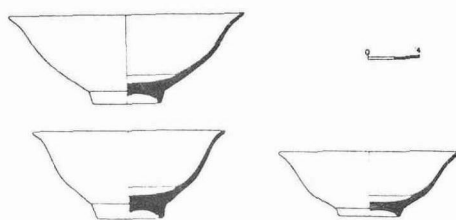
3식에 속하는 사발은 다음과 같다. <삽도 27~29>

I 式 사발 <삽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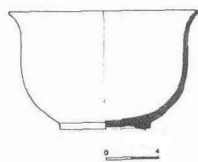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p. 252 도면에 의함)

II 式 사발 <삽도 28>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p. 253 도면에 의함)

III 式 사발 <삽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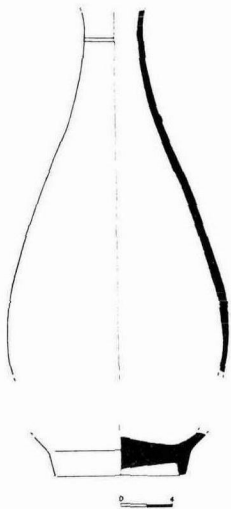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p. 254 도면에 의함)

병으로는 주둥이 부분은 깨어졌으나 전체 형태가 가늘어서 <삽도30>天狗谷窯출토 병과 어떤 의미로는 형태에서 유사성이 엿보인다. 그 외에도 둥근 도지미<도 43>가 수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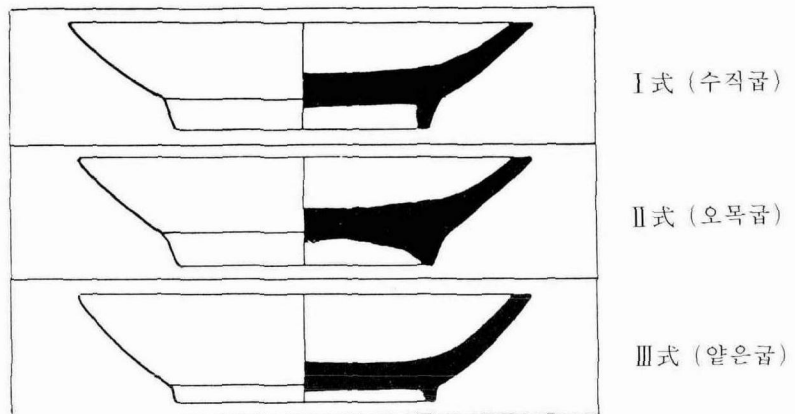
仙東里 3-나호 요는 계단상의 연실오름가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상기 가마구조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다. 선동리 3-나호요도 위에서 본 선동리 2호나 선동리 3-나호와 대동소이 하다.

선동리 3-나호요 출토의 굽다리 형식은 역시 3종류로 분류되며<삽도31>에 속하는 사발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삽도 32~34>

<삽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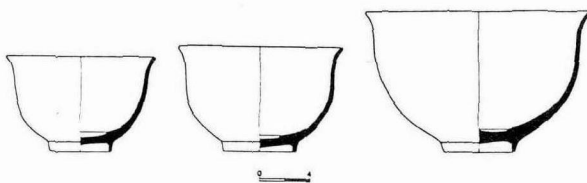
<삽도 31>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p.271 도표 2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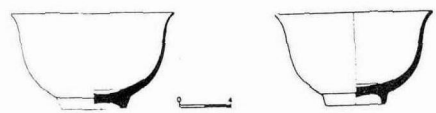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p.262 도면에 의함)

I 式 사발 <삽도 32>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p.272 도면에 의함)

II 式 사발 <삽도 33>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p.273 도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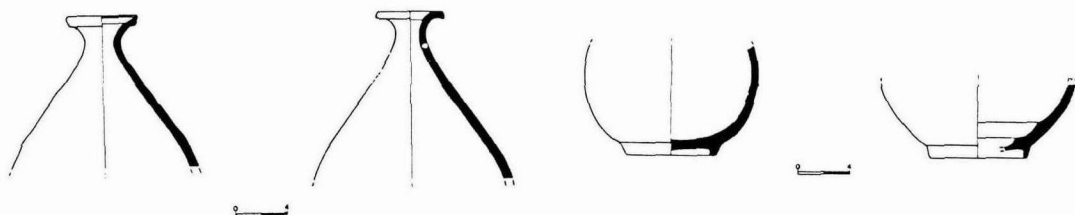
III 式 사발 <삽도 34>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p.274에 의함)

병으로는 주둥이 부분만 남아있는 파편<삽도 35>이지만 天狗谷窯의 병과는 현저히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기타 가마내 도구로는 둥근 도지미가 수집된다<도 44>.

<삽도 35>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p.284 도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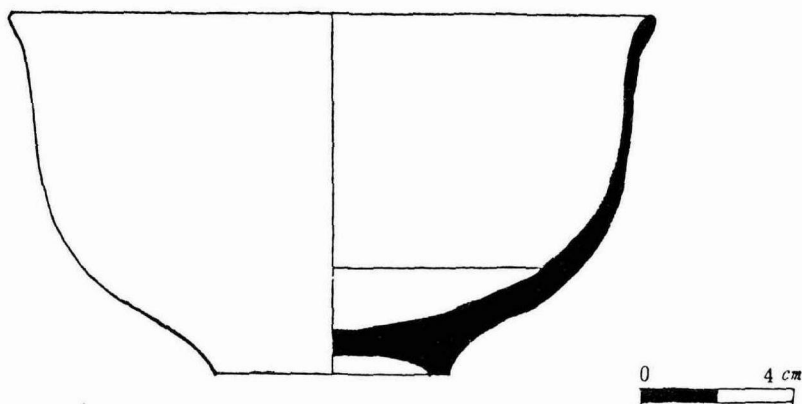
이상에서 1640~1649년간 활동한 조선 17세기 중엽의 仙東里 가마의 출토품을 보았는데 선동리 자체로는 철화백자의 특징, 회백자의 양상, 干支銘文의 출토 등 한국도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우선 제작시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有田지방의 天狗谷窯와는 직접 연결될만한 출토도편의 공통성은 없었고 다만 계단상의 연실오름가마가 선동리에 축조되었다는 점만이 양자간의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③ 後谷里窯백자와 天狗谷窯 백자

후곡리요에서는 사발, 접시, 향아리, 병 기타 등의 종류가 출토되었으며 사발과 접시의 굽으로는 오목굽이 주종을 이루고, 향아리와 병에는 추상화된 철화기법의 선무늬가 시문된 점이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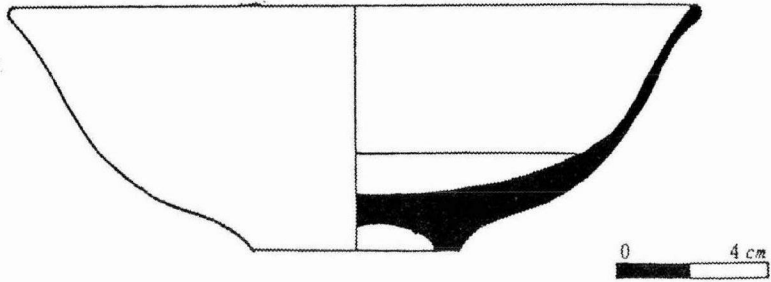
도면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삽도 36~44>

사발<삽도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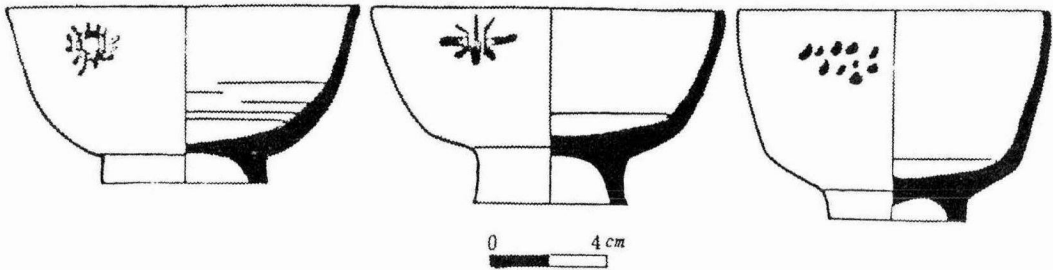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p.198, 도면 11에 의함)

사발 <삽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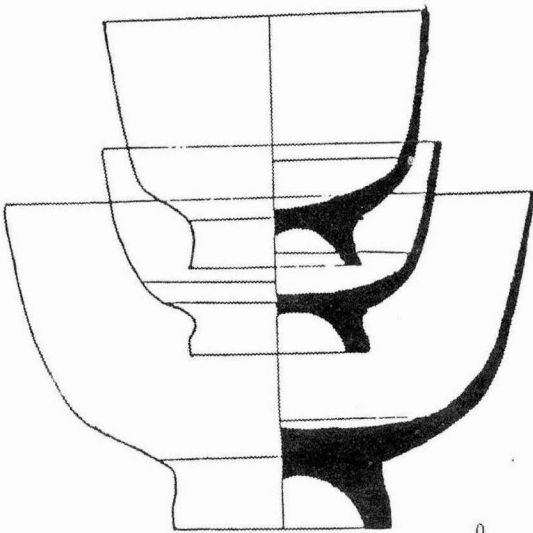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p.198, 도면 12에 의함)

사발 <삽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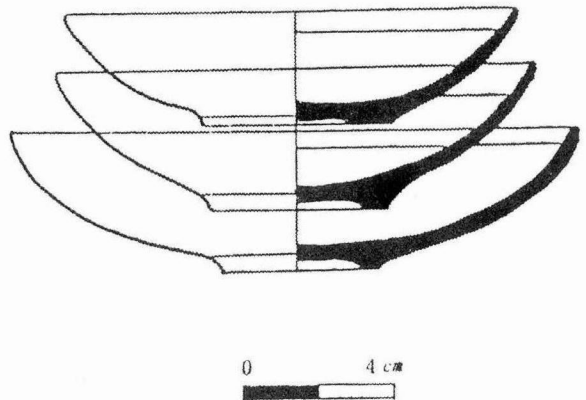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p.199, 도면 14에 의함)

사발 <삽도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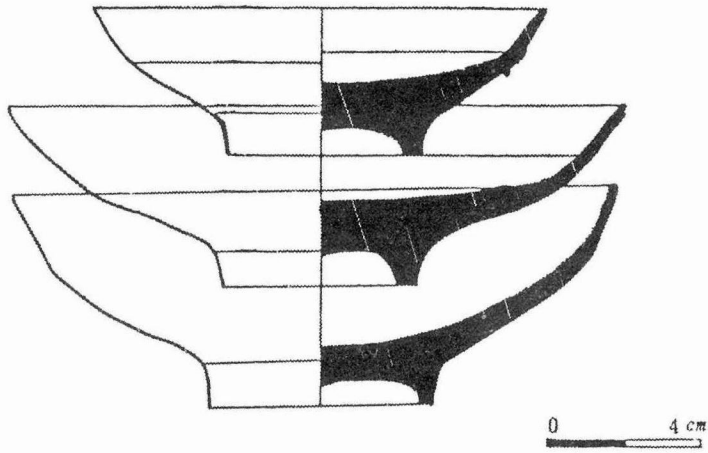
접시 <삽도 40>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
p.199, 도면 15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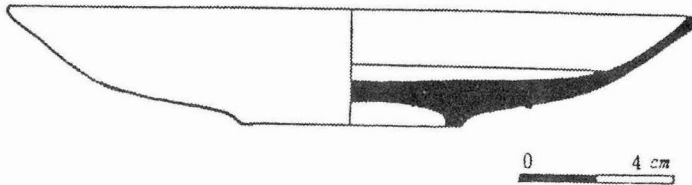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
p.199, 도면 16에 의함)

접시 <삼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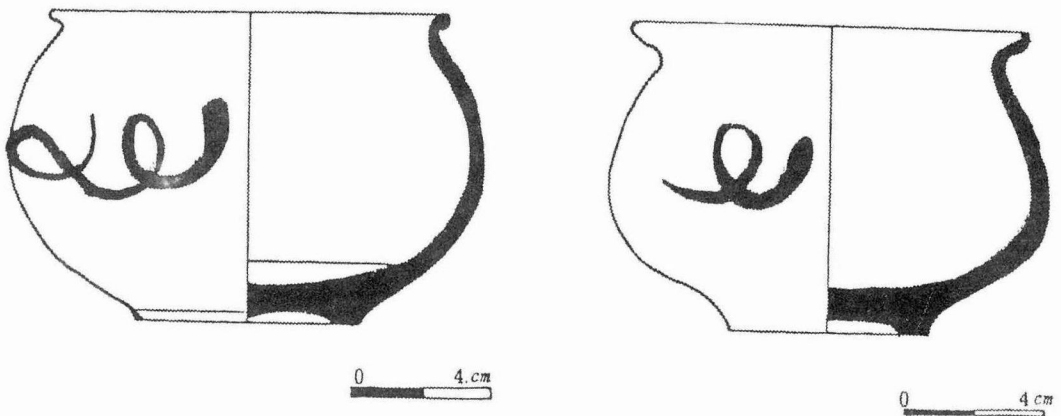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p. 200, 도면 17 에 의함)

접시 <삼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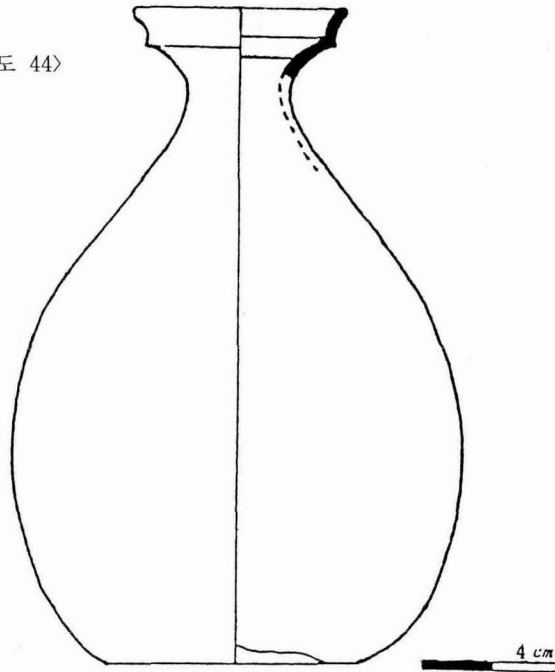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p. 200, 도면 18 에 의함)

항아리 <삼도 43>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p. 201, 도면 22·24에 의함)

병 <삽도 44>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V)』p. 202, 도면 27에 의함)

이상에서 본 후곡리 출토의 그릇들이 실측도면상으로는 외반되지 않은 사발이 天狗谷窯 출토의 사발과 유사해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곡리 가마는 17세기 경의 전라도 남단의 한 지방가마이므로 중앙 광주의 관요와는 솜씨에 차이가 있다. 天狗谷窯 제품과 後谷里요 제품은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지방가마라는 공통성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된다.

V. 맺음 말

일본 전통문화 속에 뿌리박힌 한국문화는 여러 방면에서 들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조금이라고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有田 天狗谷窯와 우리나라 16~17세기 백자가마 구조 및 陶片의 성격을 비교해 보았다.

天狗谷窯는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전면이 밝혀졌고 특히 地磁氣年代測定方法을 이용하여 중첩된 天狗谷窯의 각 각의 廢絶年代를 추출해 내고 있다. 그래서 이들 측정연대의 타당성을 출토유물과 연결해 보고 또 조선백자 가마와 출토유물을 통해 단순 비교도 시도했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 비교라든지 무늬비교에는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일본 天狗谷窯와 우리나라窯들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단순 비교에 의해 종합 결론적인 이론이 성립될 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양 지역의 가마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과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天狗谷窯의 출토유물들 중에는 한국적인 형태와 무늬가 분명히 감지되는데 이 때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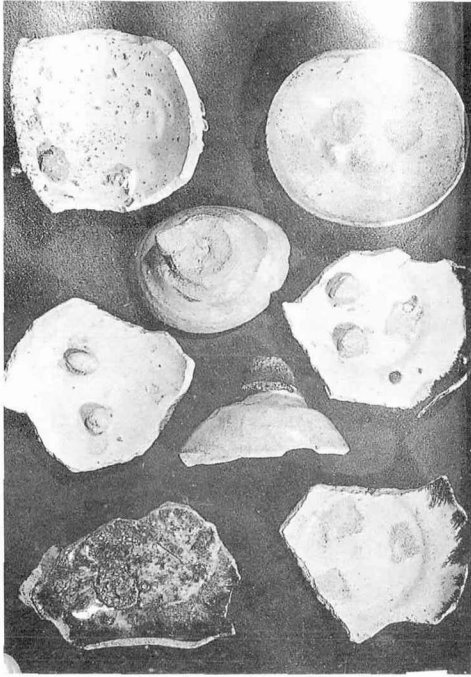
서에서 참고로 비교되는 유물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청자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무모하게 비교 인용되는 방식은 피해야겠다는 점이다.

둘째, 天狗谷窯는 조선의 匠人이던 李參平이가 1616년 일본에 가서 처음 개요한 가마일 것이라는 생각을 질게 하면서 발굴에 임했기 때문에 磁氣測定결과 A窯의 폐절시기가 1614 ± 7 , 1615 ± 12 , 1747 ± 20 의 세 시기가 추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14 \sim 1615 \pm 12$ 년으로 거의 확정지으므로써 A窯는 17세기 초에 폐절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窯 하층에 있는 E窯의 활동시기는 16세기 말까지 올라간다는 이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A그룹에 속하는 E, A, D窯로부터 출토된 陶片의 무늬는 조선 백자와 비교할때 도저히 16세기말~17세기 초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최하위 층인 E窯 출토도편 가운데 횡선수법, 능화형 안에 무늬를 그리는 수법, 산수문의 구도, 부속문양으로 여의두무늬와 같은 기법은 한국도자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는 대개 18세기로 내려온다. 뿐만아니라, 보고서에서도 무늬의 비교에서는 18세기 조선시대 청화백자가 주로 인용되고 있음은 이미 본문 가운데서 지적한바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1747 ± 20 년이라는 연대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했다. 따라서 李參平의 활동시기라고 생각하는 시대와 연결짓기 위한 의도적인 이론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셋째, 가마내 燒土를 시료로 한 磁氣學的 연대측정 방법은 매우 타당성 있는 연대 추론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요지 발굴시, 이 측정방법을 과감히 적용해 가마의 제작활동시기를 추적 해야하지 않을까?

넷째, 16~17세기 경기도 광주의 변천리와 선동리 가마 두곳과 전남 승주군 후곡리의 지방가마 한 곳의 발굴 보고서를 통해 天狗谷窯와의 관계를 밝혀 보려고 했다. 그러나 비교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단순 소개 했으나, 그 결과 등근 도지미의 사용이라든지, 갑발과 같은 요 내부 도구에서는 많은 유사성이 보였다. 또 선동리 3-나호요는 계단상 연방식오름가마의 흔적이 확인하여 한국의 1640~1649년에 활동한 가마와 $1614 \sim 1615 \pm 20$, 혹은 1747 ± 20 에 폐절된 天狗谷 A窯의 계단상연방식오름가마와 유사한 계단식 구조였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논문은 극히 지역적인 문제만을 일차적으로 다룬 결과가 되었다. 일본속에 내린 한국의 뿌리는 본 고장인 일본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장 답사하고 실 유물을 대하고 또 그들의 기록물을 직접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될때 비로소 그 원류를 파헤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후일의 과제로 미룰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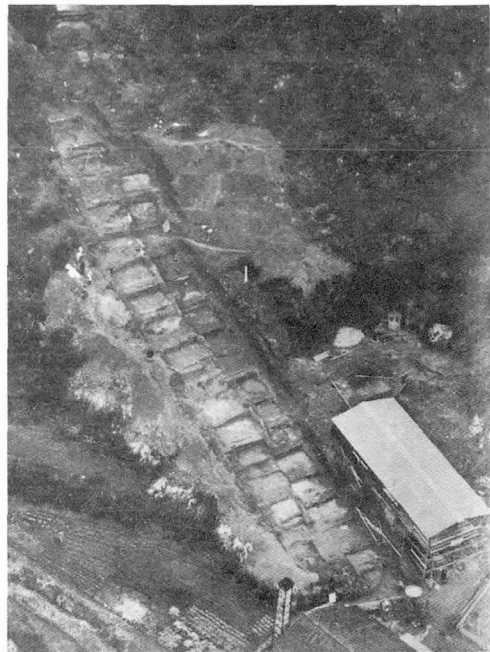
<도 1> 岸嶽系 飯胴甕下窯 출토 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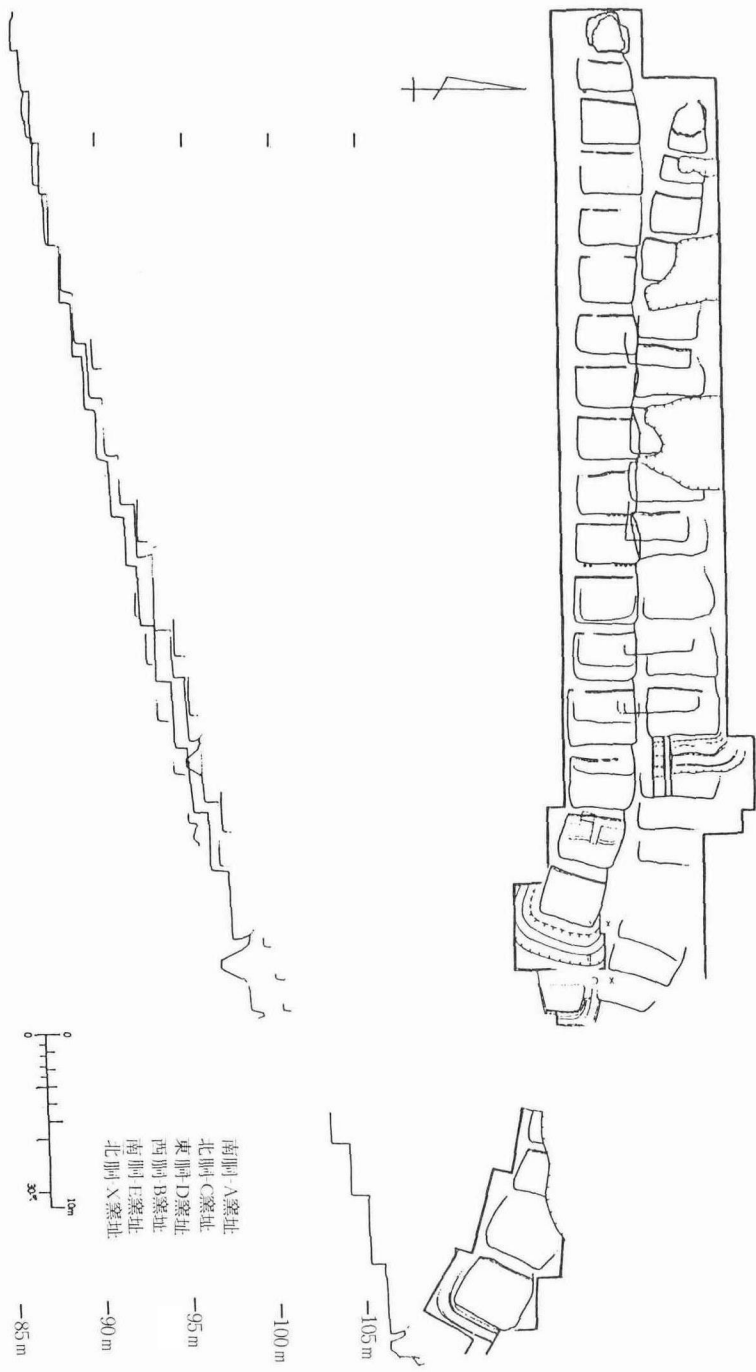
<도 2> 岸嶽系 皿屋窯 출토 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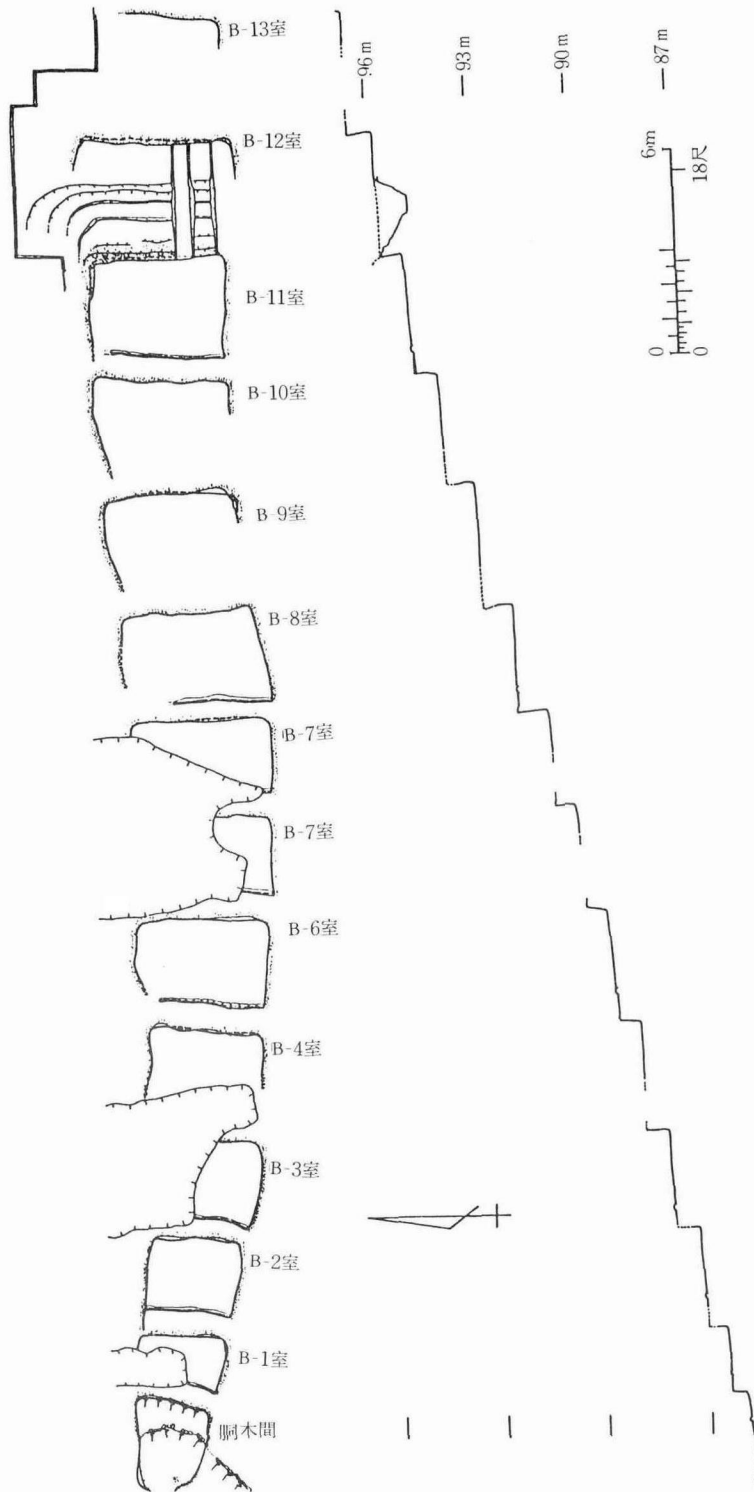
<도 3> 高麗神 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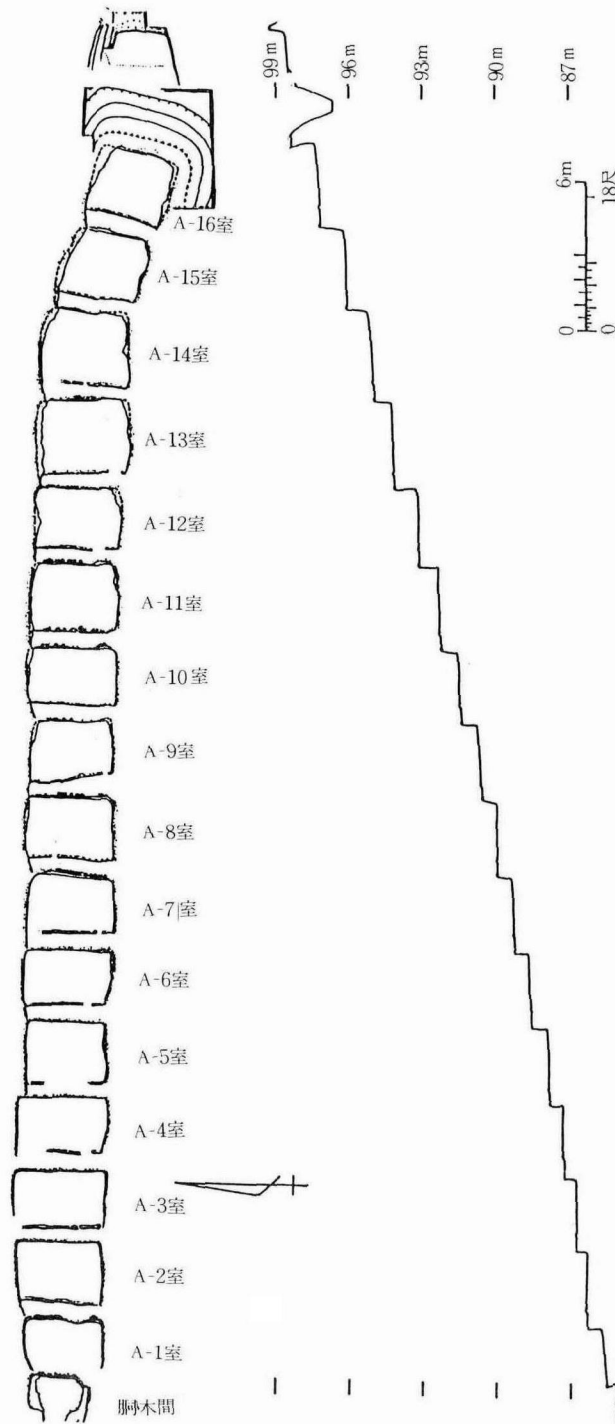
<도 4> 天狗谷 窯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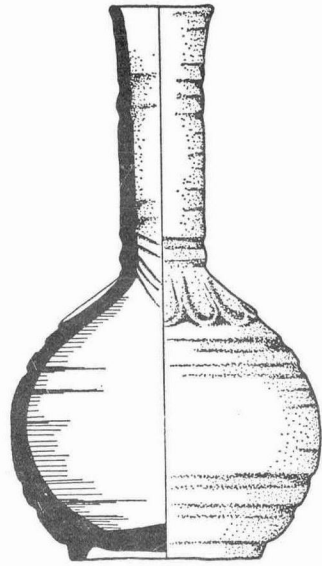
<도 5> 天狗谷 古竃址群實側圖(『有田天狗谷竃』도 38실측도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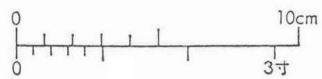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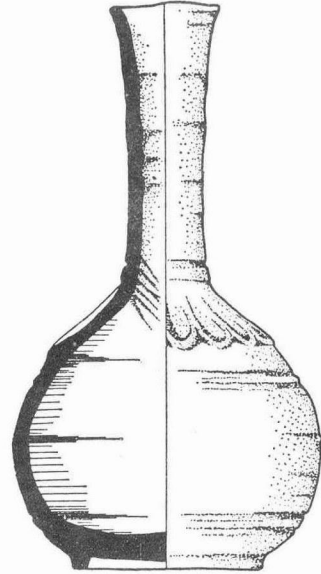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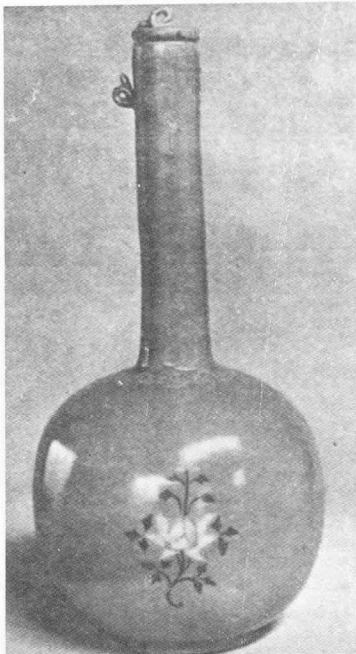
<도 6> 天狗谷 B窯址 실측도 (『有田天狗谷古窯』 도41 실측도에 의함)



<도 7> 天狗谷A竃址 실측도 (『有田天狗谷古窯』도 40 실측도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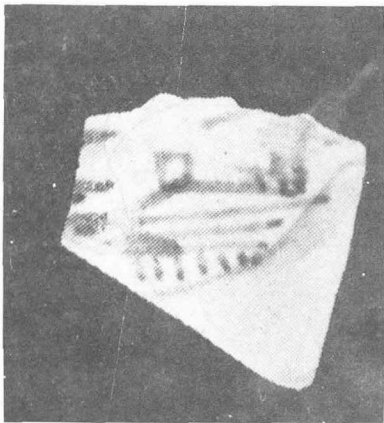
〈도 8〉 天狗谷 E窯13室 출토 청자병



〈도 9〉 高麗象嵌靑磁菊花文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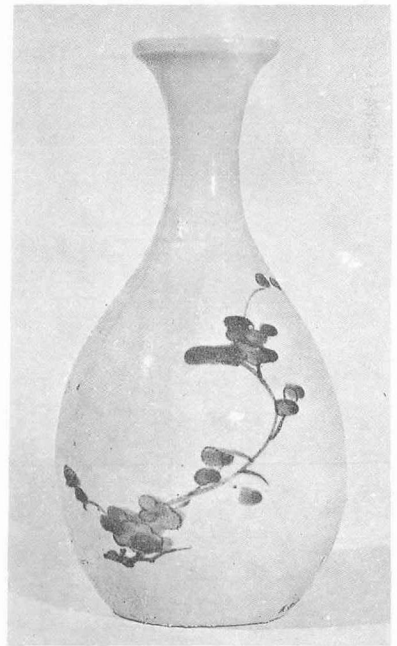
〈도 10〉 天狗谷 E窯13室 출토 완



〈도 12〉 天狗谷 E窯 출토 靑畫白磁 산수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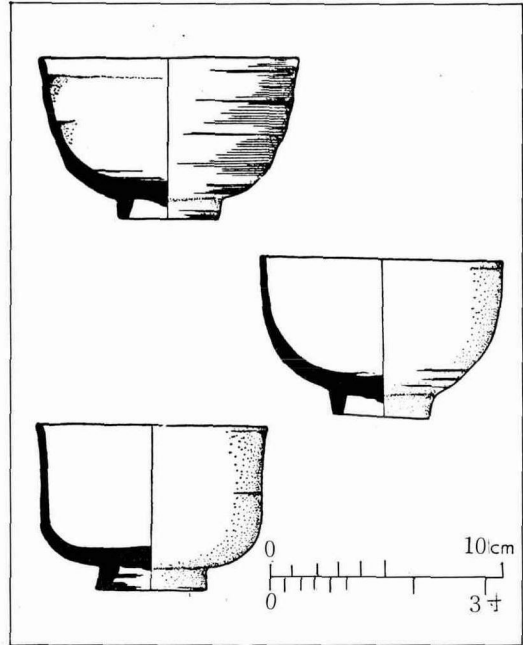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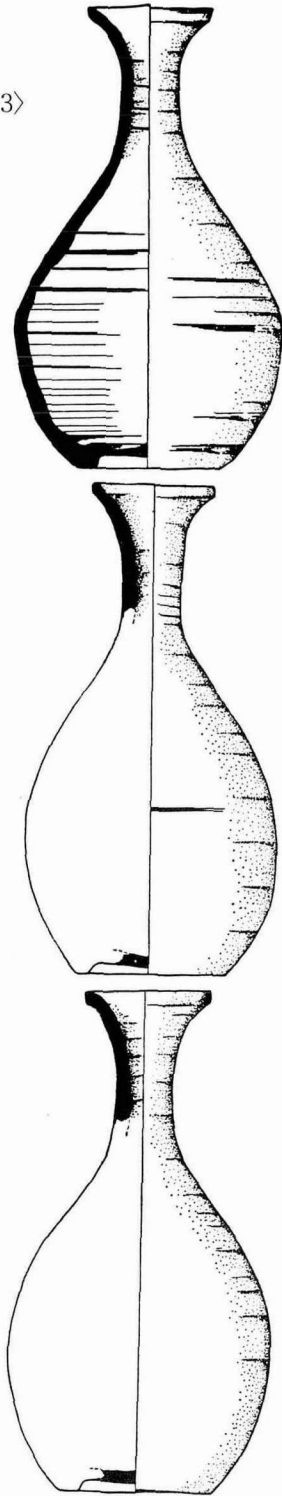


〈도 11〉 朝鮮靑畫白磁 모란문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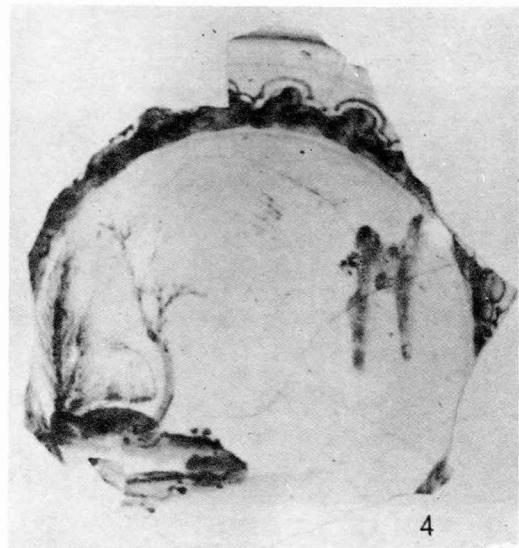


〈도 13〉 天狗谷 E窯 출토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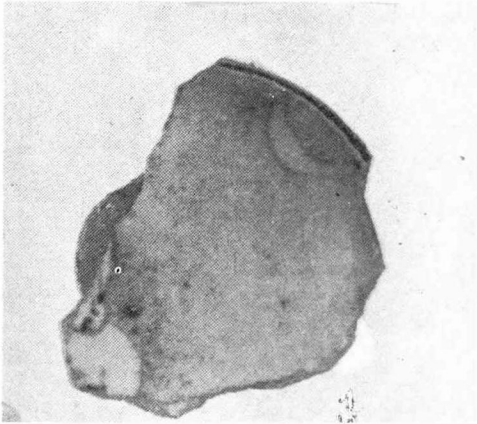
<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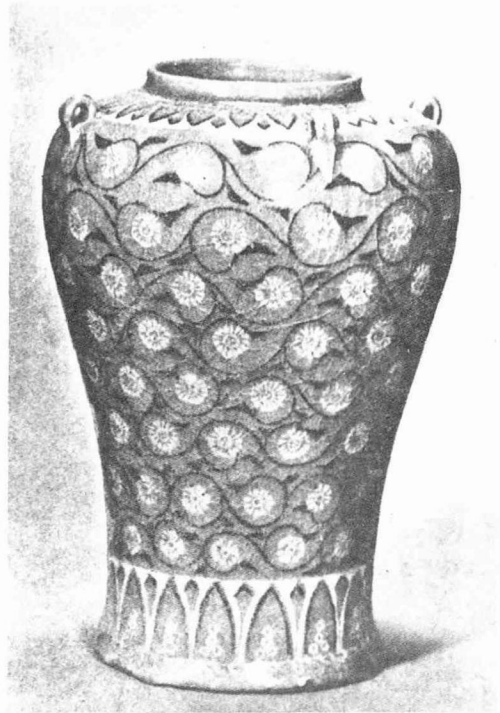
<도 14> 天狗谷 E窯15室 출토완



<도 15> 天狗谷 E窯 15실 출토 접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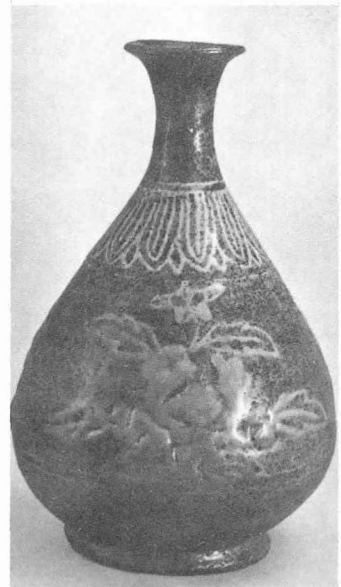
〈도 16〉 天狗谷 E窯15室 출토 접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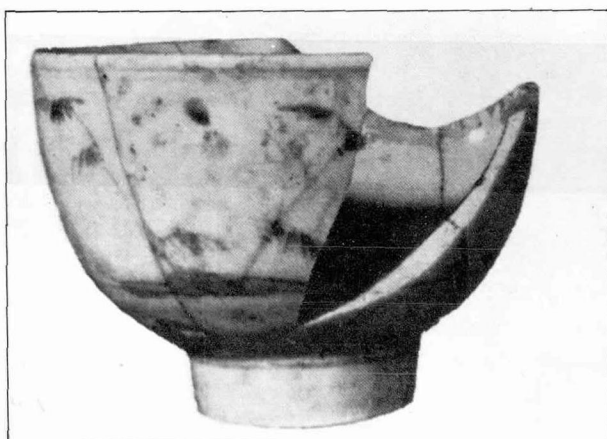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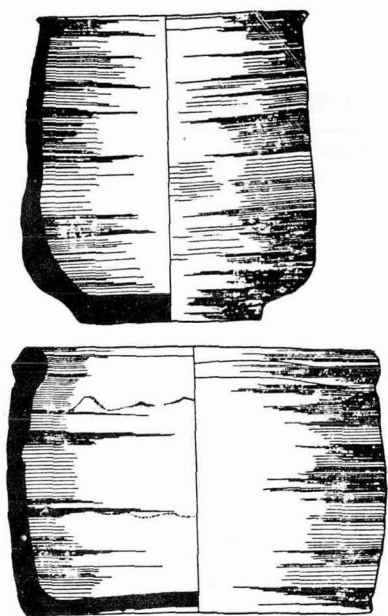
〈도 17〉 高麗 상감청자 국화문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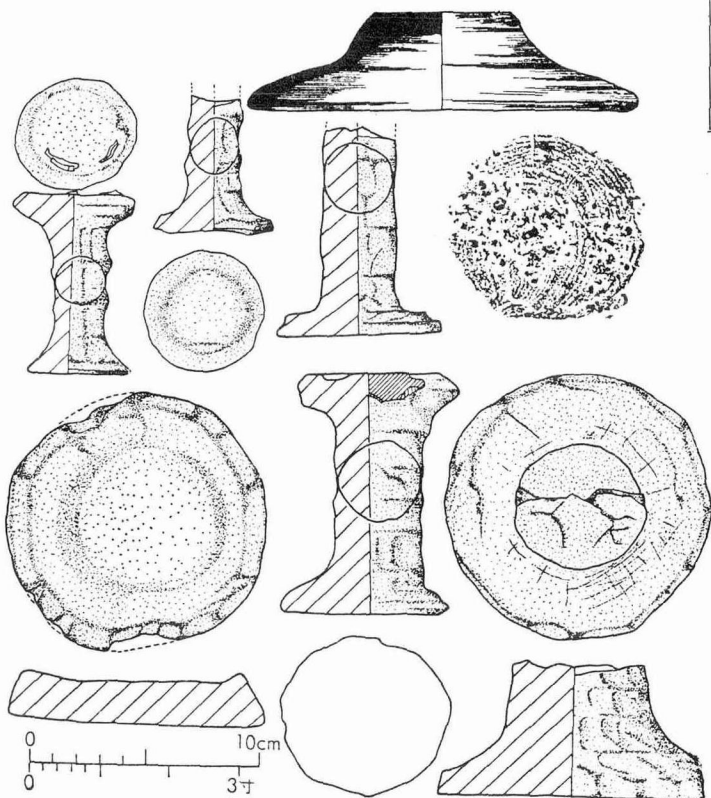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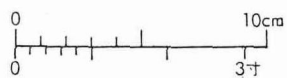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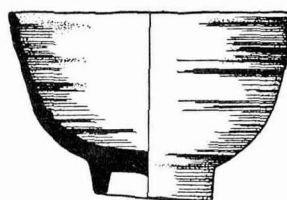
〈도 18〉 朝鮮청화백자 인물문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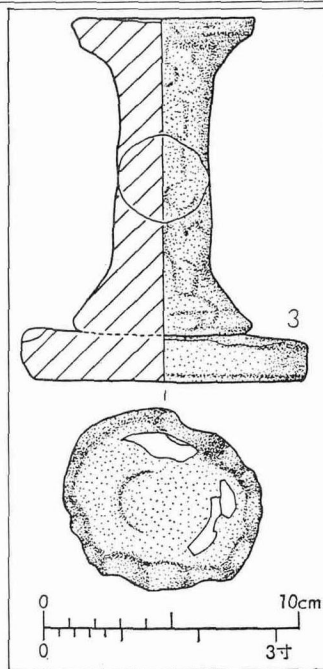
〈도 19〉 朝鮮 粉靑沙器 모란문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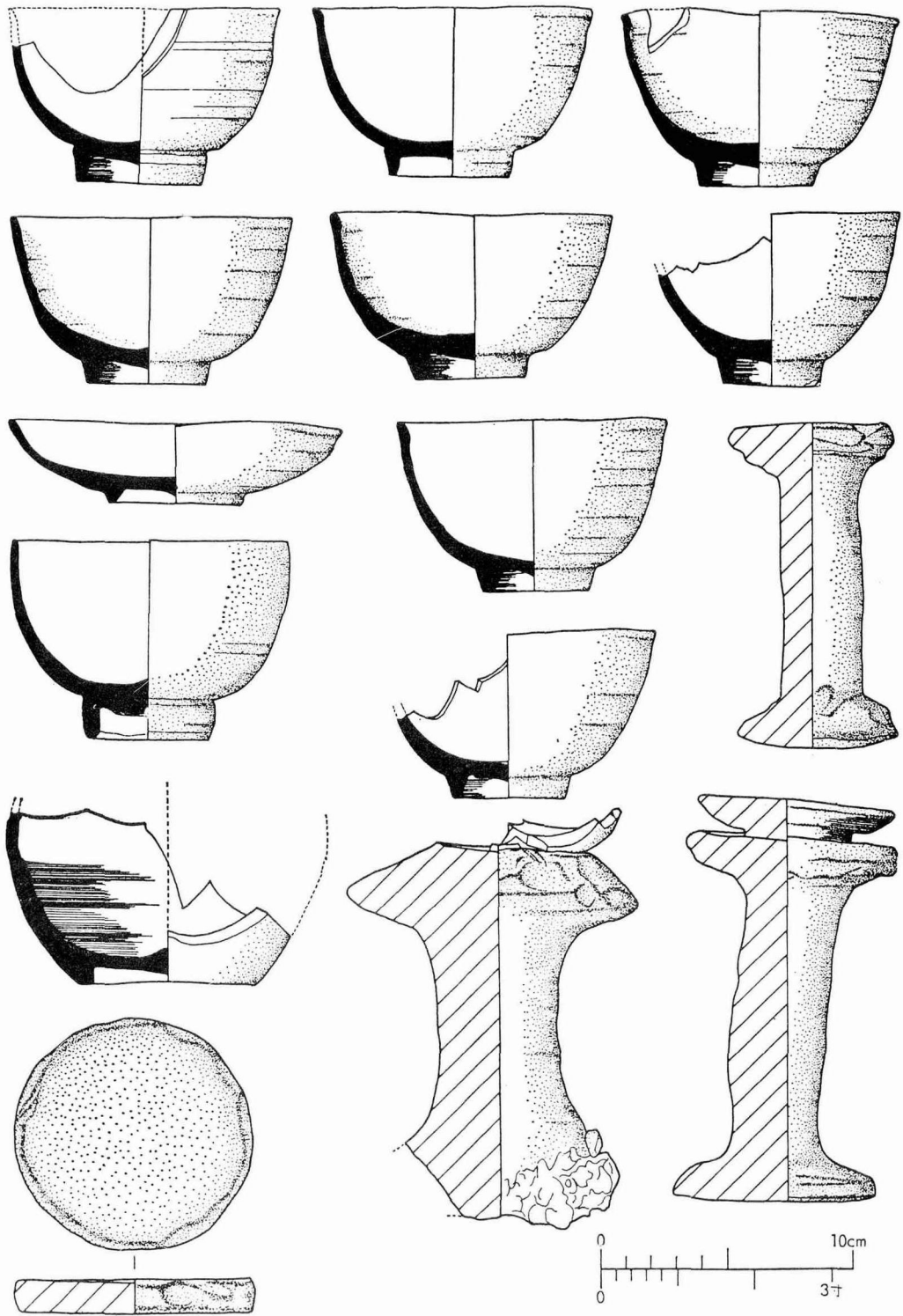
<도 21> 天狗谷 A窯13室
출토 완



<도 20> 天狗谷 E窯15室 출토 갑발, 갑발뚜껑, 도지미



<도 22> 天狗谷 A窯 13室 출토
도지미



〈도 23〉 天狗谷 D窯 출토유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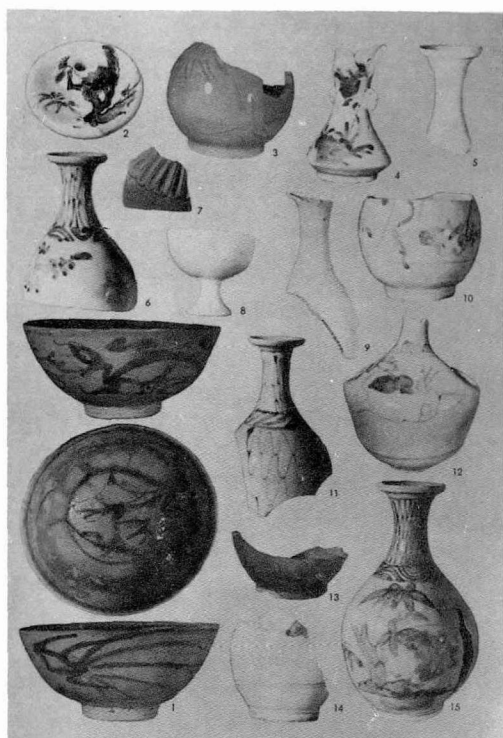
〈도 24〉 天狗谷 D窯 출토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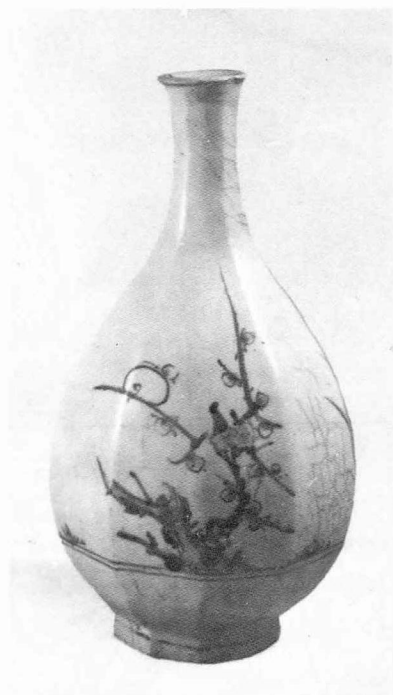
〈도 26〉 天狗谷 B窯11室 출토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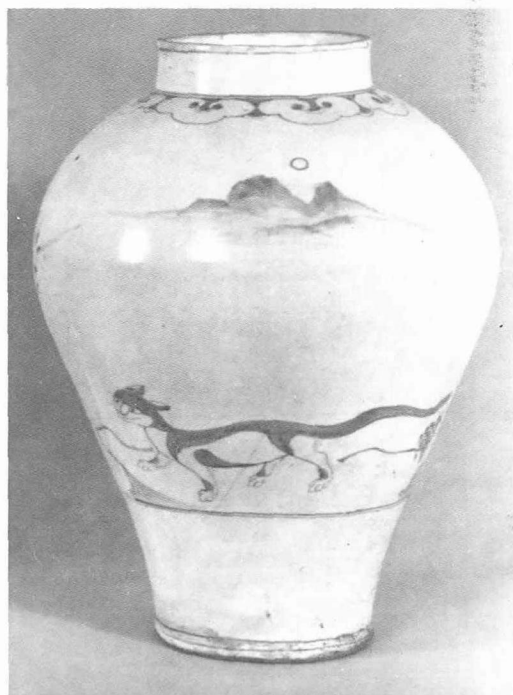
〈도 25〉 天狗谷 B窯 1~11실 출토유물들



〈도 27〉 天狗谷 C窯 출토유물들



〈도 28〉 朝鮮 靑畫白磁 梅鳥文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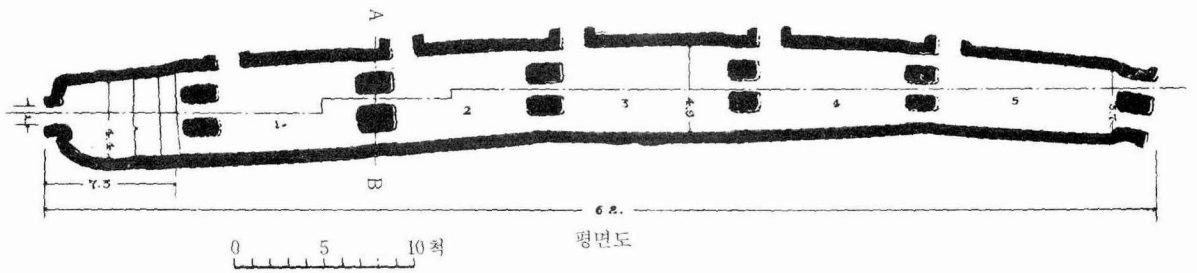
〈도 29〉 朝鮮靑畫白磁 山水文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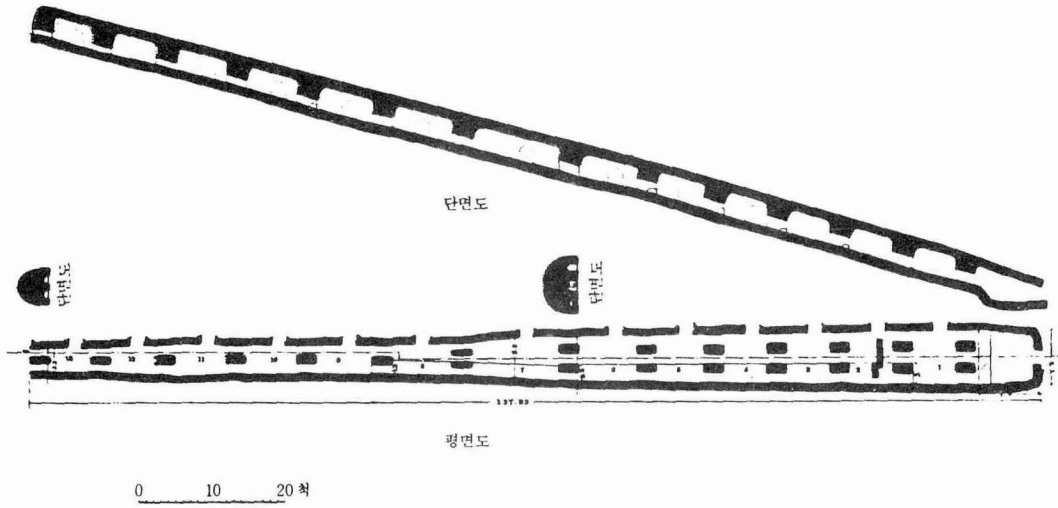
<도 30> 朝鮮 靑臺白磁山水文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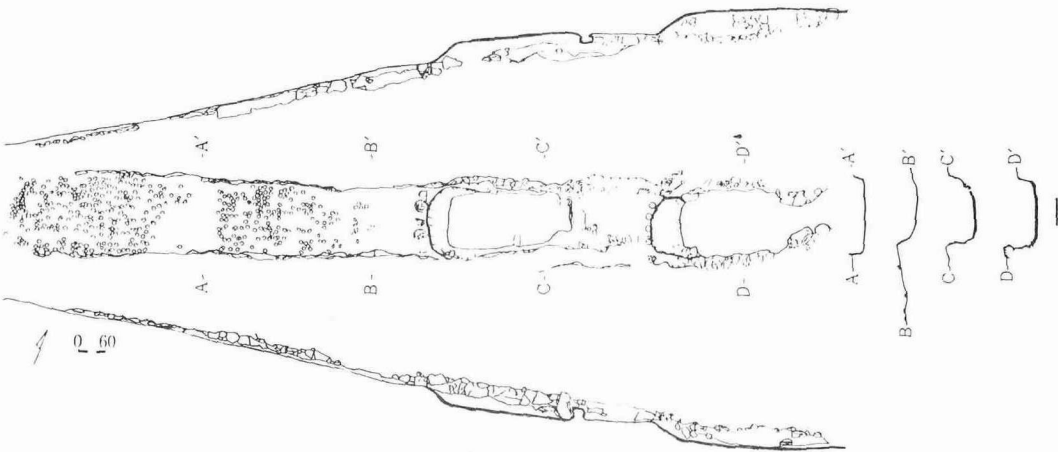
A 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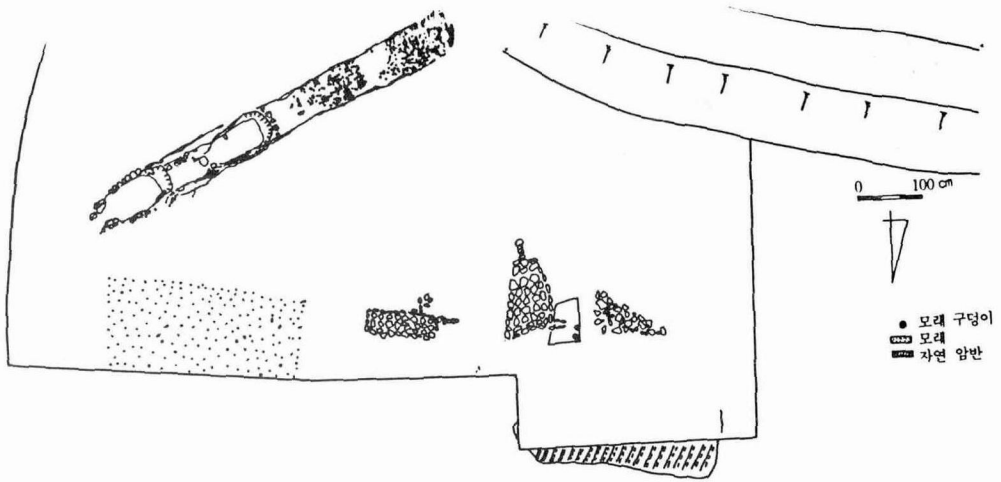
31) 鶴峯里 제1도요지 B窟 실측도(『계룡산록 도요지 조사보고』, 도판 제8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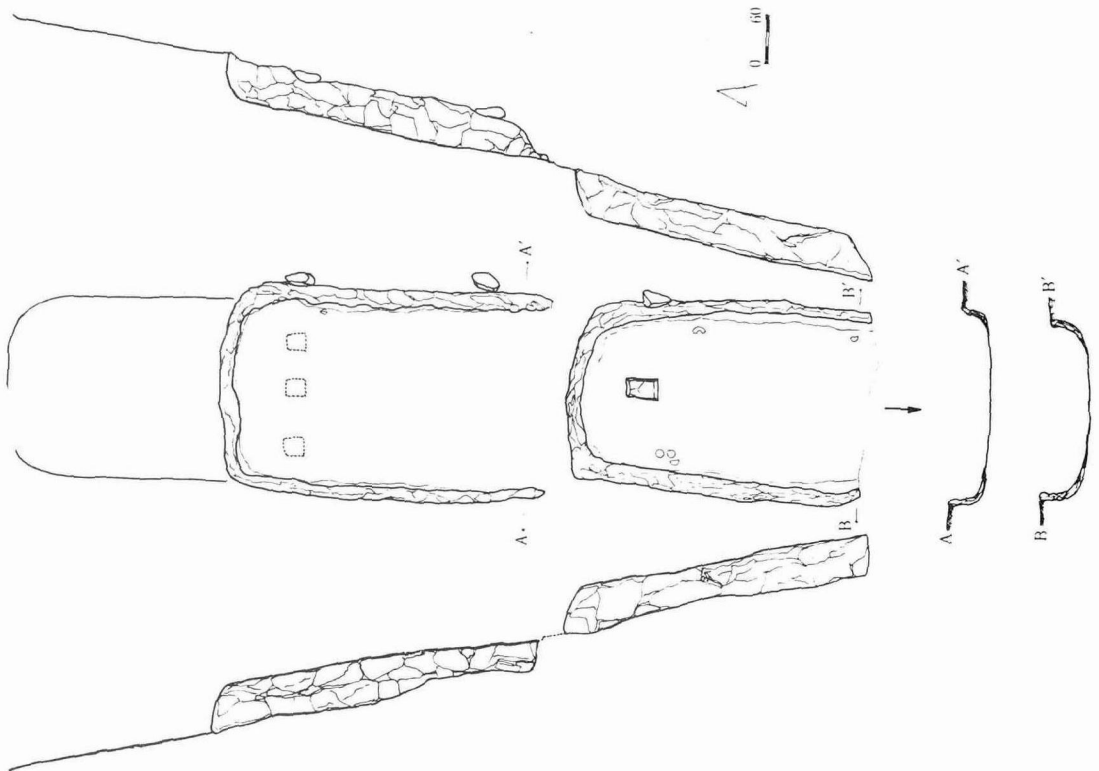
<도 32> 鶴峯里 제5도요지 실측도 (『계룡산록 도요지 조사보고서』 도 제24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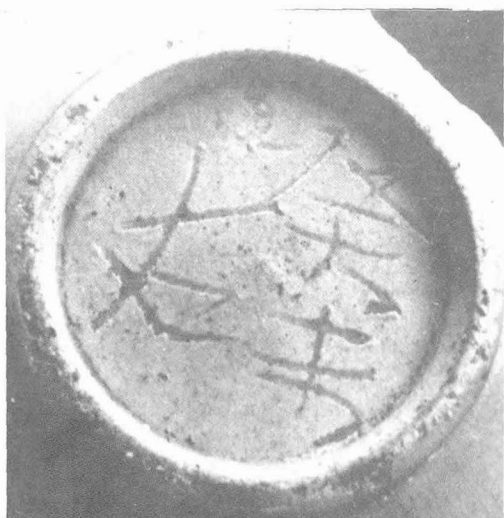
<도 33> 반천리요 평면·단면도 (『광주 조선백자요지 발굴보고서』, p.151 도면 4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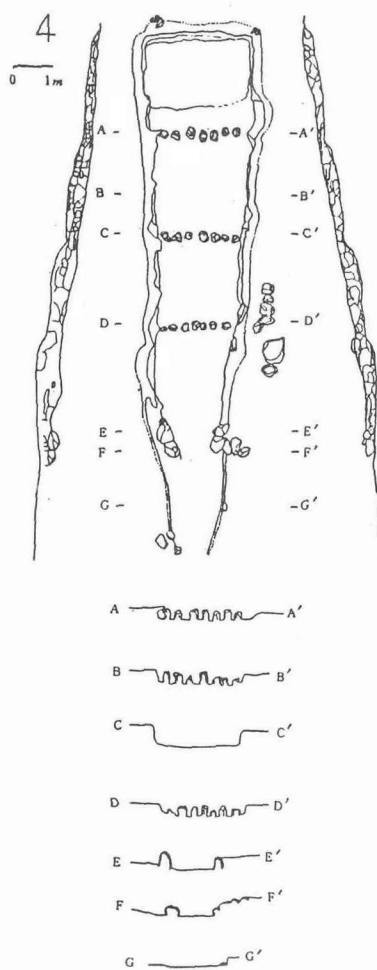
<도 34> 변천리 요 와 작업장 배치도(『광주 조선 백자요지 발굴보고서』p.149, 도면 3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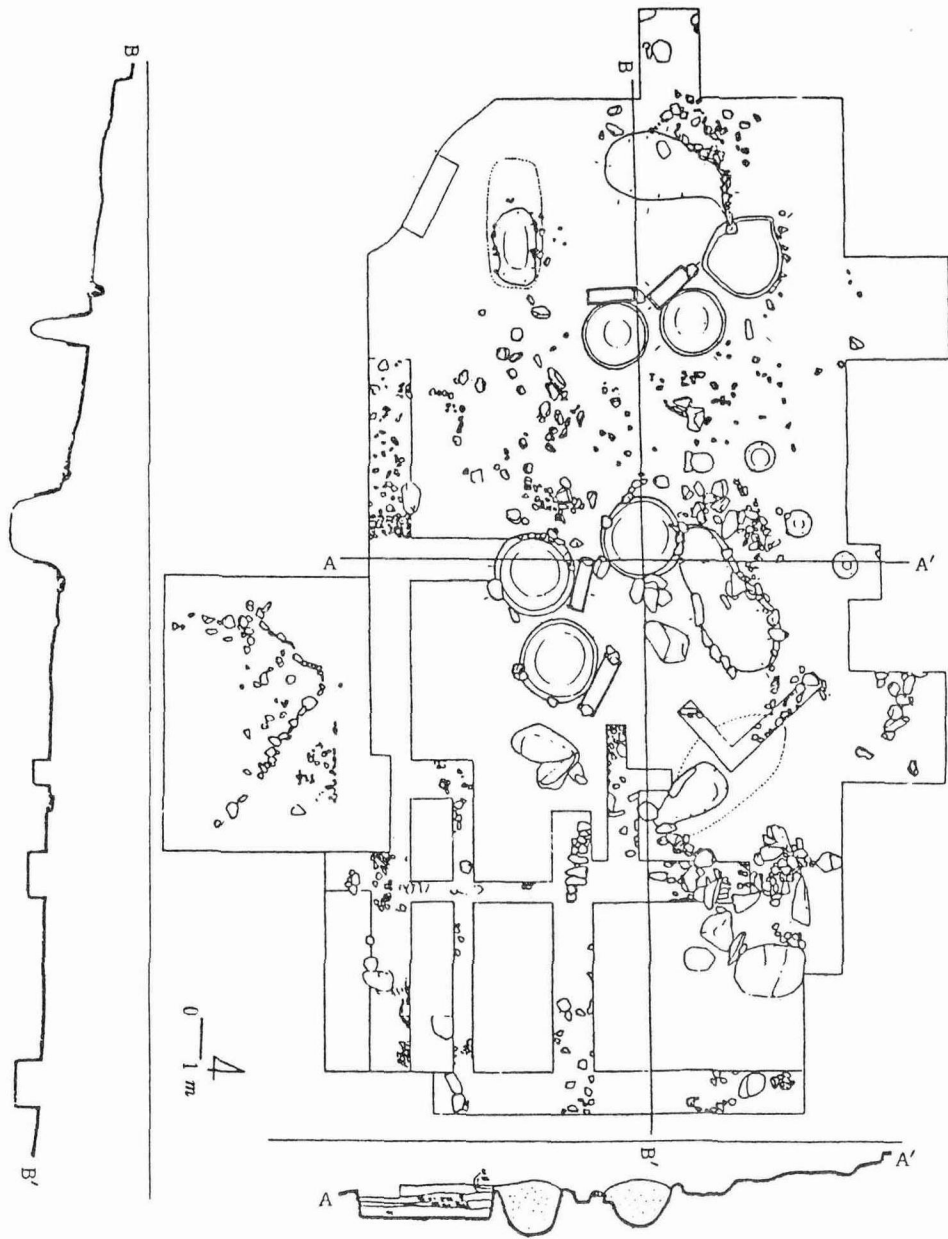
<도 35> 선동리 3-나 요 실측도(『광주 조선 백자요지 발굴 보고 서』, p.311, 도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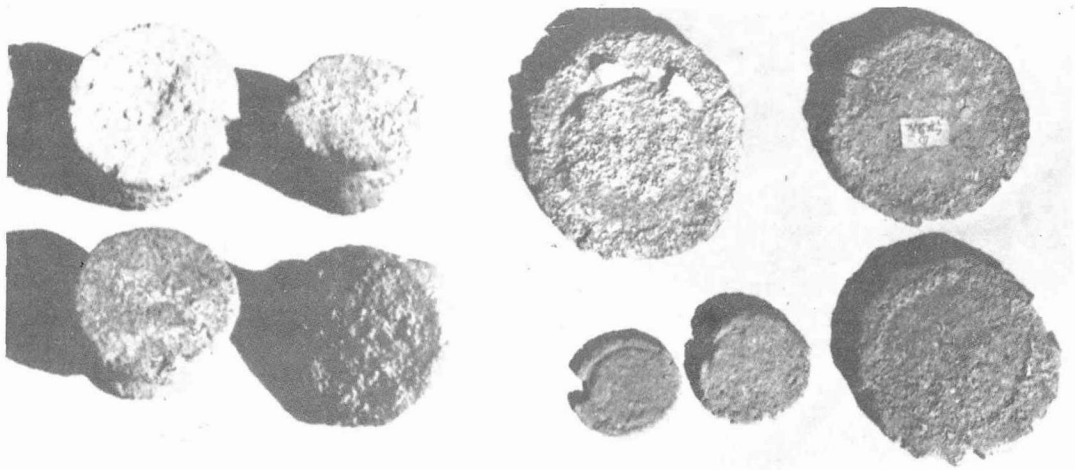
〈도 36〉 경기도 광주 仙東里 출토
「癸未右」銘 굽다리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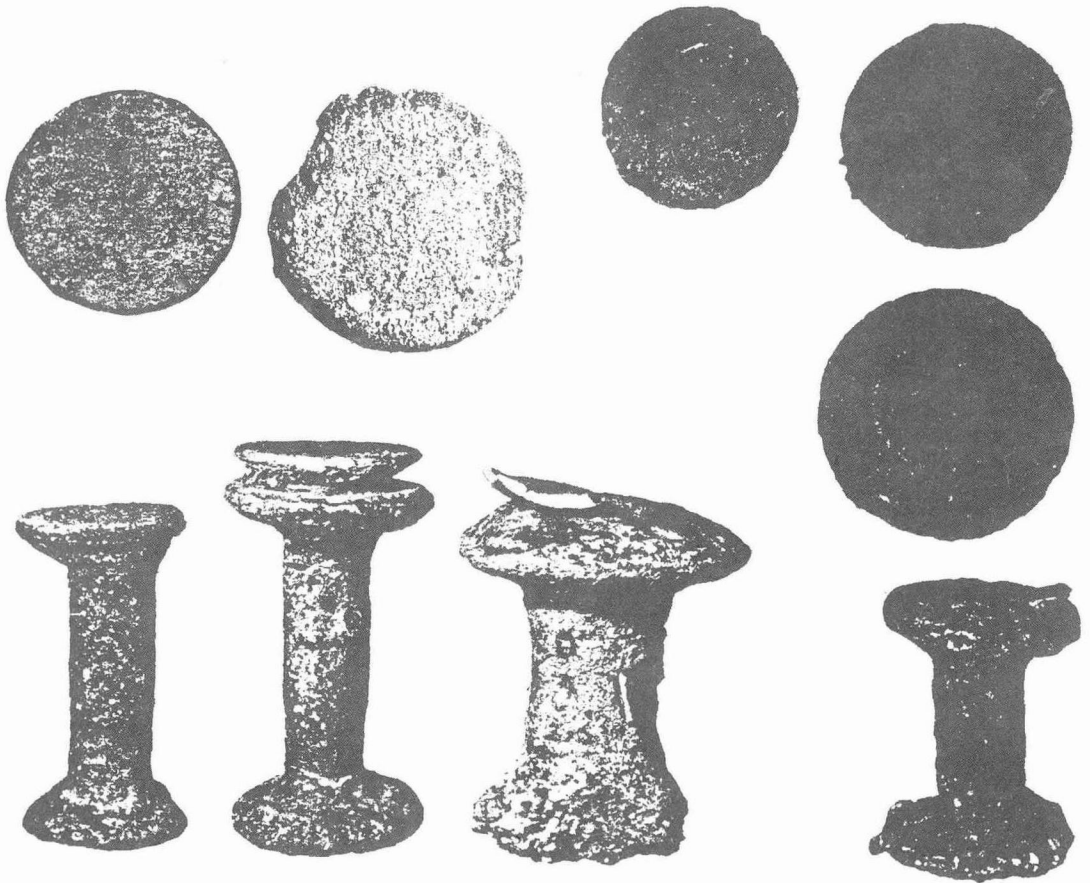
〈도 37〉 후곡리 요 평면·단면도 (『주암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V)』, p.191, 도면3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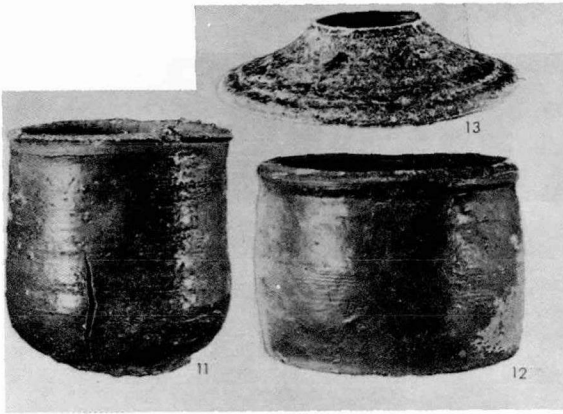
<도 38> 후곡리 요 작업장 실측도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V)』, p.192, 도면4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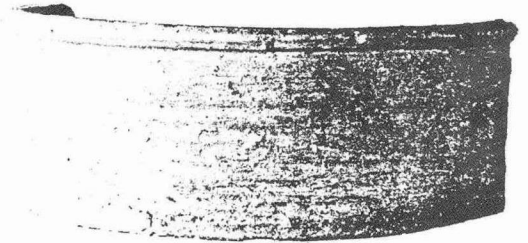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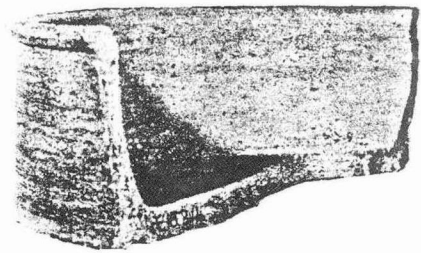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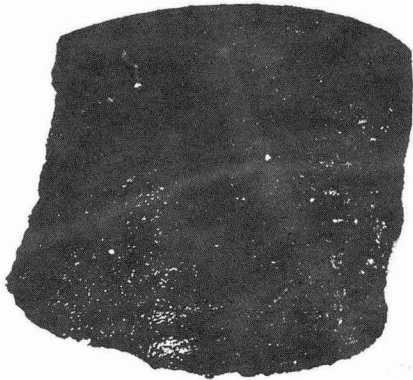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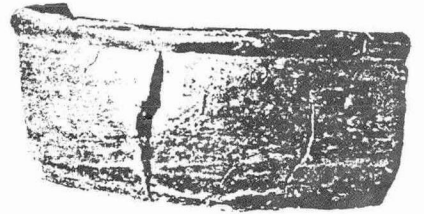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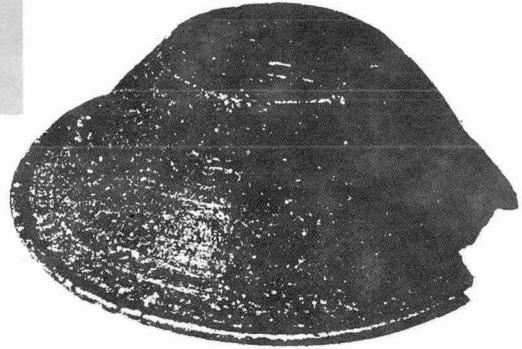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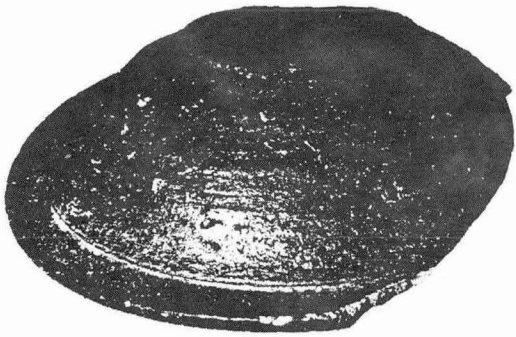
〈도 39〉 번천리 5호요 출토 도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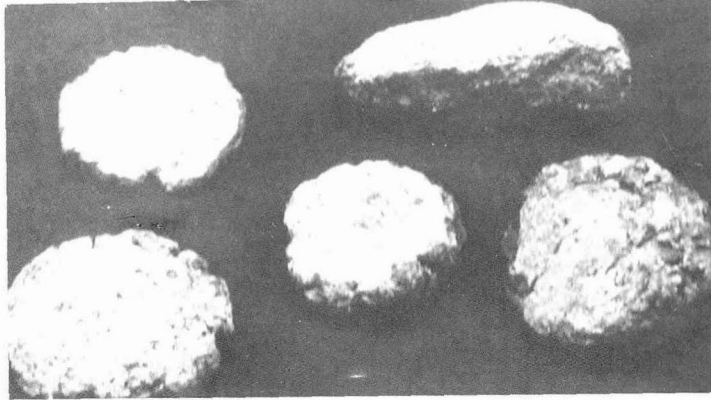
〈도 40〉 天狗谷 E·A·D·B窯 출토 도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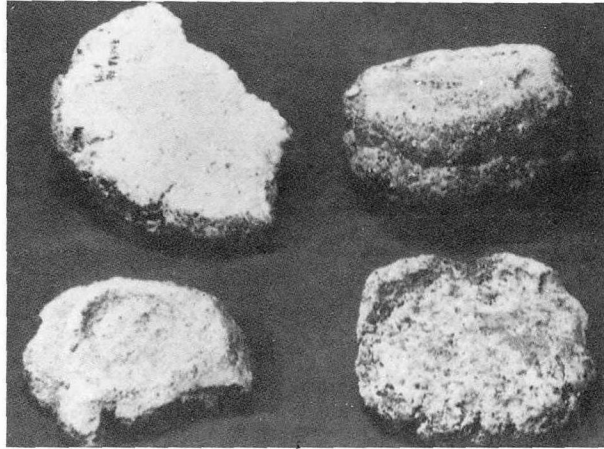
〈도 41〉 天狗谷 E窯15室출토 감발



〈도 42〉 天狗谷 B窯 출토 감발



<도 43> 仙東里 3-가호 출토 도지미



<도 44> 仙東里 3-나호 요 출토 도지미